T결정

94 제 1차

전교 여학생

대표자 회의

일시: 하나되기 위한 3월 17일 4시

어디서: 공대 5호관 세미나실
야외공연장

누가: 복현의 모든 여학생회(부) 일꾼들

7천의 어깨동무
제 9대 자주 총여학생회

차 례

여는 시 2
총여학생회장 인사말 3
전여대회란? 4
여학생회 지위와 역할 8
아니 이렇게 좋은 일이? 10
우리도 함 튀어보장께롱 1 11
우리도 함 튀어보장께롱 2 16
열두고개 넘어가기 19
과 여학우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20
제 9대 자주 총여학생회
총노선 25
각 부서별 사업계획 29
총여학생회가 힘쓰는 사업들 40
수입개방 저지하자! 42
회칙 43
이렇게 많은 이들 모두가
나의 동지랍니다 49
불러보자 좋은 노래 53

여는 시

이 땅 아름다운 여인이고 싶네

이제 이런 여인이고 싶네
강물같은 스물을 넘어
우리들의 어머니가 당당히 그러하셨듯
한많은 이땅 대처에서
지쳐 돌아온,
맑은 피 흘리는 남자를 만나 사랑하고 싶네
온 가슴 넉넉한 힘이 되고 싶네

이제 이런 여인이고 싶네
나면서부터 웃목으로 던져진 이름 석자
화려한 자본 시장에 상품으로 팔리워진 풋풋한 순결
착취에 한겹 더 착취를 받는 식민지 조국이라면
이제는 내손으로 당당히 찾아오겠네. 온 몸에
감긴 굴레 당당히 끊고 오겠네

이제 이런 여인이고 싶네
갈라진 하늘 아래 갈라진 그리움
오뉴월에도 서리를 내리는 갈라진 염원이 되어
분단된 조국 산천 곳곳에
지천으로 피어나는 너도나도
눈부신 통일의 꽃이고 싶네. 진정 이렇게
아름다운 이땅의 딸이고 싶네

총여학생회장 인사글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해야 할 일 하는 사람
할 수 있는 일 아니라
남들이 하지 않는 일
하나하나 찾아서 해내는 사람
그런 사람 가리켜 우리는
자주여성이라 부르리

이런 자주여성의 모습이 바로 우리 여학 간부들의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받갑습니다.여학 일꾼 여러분!
대면식이다, 한영회다, 이것저것 정신이 없죠?
새내기들은 여기 저기 돌아다니느라 정신이 없고 여학우들은 자신의 삶을
충실히 꾸려가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또 학내는 학원 안정화 대책 법안
철폐와 수입개방 저지의 함성으로 분주하구요.

이제 우리 7천을 책임지는 여대표님들이 한데 모여 힘과 지혜를 모아 논의
하고 한차게 94년의 방향을 내어오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일꾼들의 그간의 모습들을 돌아보고 우리 일꾼들이 먼저
모범으로 서고 힘을 모으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밤새워 고민하고 준비한 만큼의 더 큰 의의와 풍부한 내용과 실천들을 결
의하는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7천 여학우의 자주적인 삶과 수입개방 저지, 조국통일, 여성해방이 한걸음
앞당겨지는 전여대회가 될 것이라는 것을 믿으며 '자신 있습니다'라고, 그
리고 그것은 우리 7천 자주여성에 대한 믿음에서 출발한다고 말해봅니다.

사랑합니다.여학 일꾼님들

7천의 어깨동무 자주 총·여회장
이 상순.

1. 전여대회란?

전체 여학생 대표자 회의를 말한다.
이제껏 중앙 운영위가 (각 단대여학생회장과 총여회장 부회장) 경대 여학생회의 실질적 대의 기구로서 총여사업을 고민하고 결정하는 단위였다. 그러나 중앙운영위만으로 편차가 심한 단대 과 여학우들의 상황과 의견을 다 수렴할 수 없고 실지로 기층여학의 수렴된의견을 토대로 기층과까지의 지도와 사업 공유가 미비했다. 총여학생회가 여성문제를 칠천의 힘에 근거하여 풀어나가며 여학의 실질적 대표조직으로서의 위상을 갖추려면 칠천여학우 한사람 한사람의 이해와 요구를 담아 낼수 있도록 과의 주체를 만들어내고 그 역할을 높여야한다. 그럴때 총여는 여학우 대표자들에 근거한 의견을 적극 받아들여 여학우의 다양한 이행와 요구를 모아내고 이를 기반한 사업을 펼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
여성은 태어날때부터 여성이라는 이름만으로 차별과 억압 굴종착취를 부여받았다. 그러나 지금 자주여성으로 살아가고자 이땅의 당당한 주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의 분산된 의견들을 하나로 결집하고 칠천이 함께 실천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그리하여 여성이므로 더 위대해 보일수 있는 우리 여성이 되자.

2. 전여대회 의의와 목표

의의

1) 칠천 여학우를 하나로 묶어 세우는 장이 될것이다.
여학생회의 주인주체는 칠천여학우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칠천여학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중심에 놓고 사업을 진행하기는 어려운 점이 많았다. 따라서 전여대회를 통해 여학우를 대표하는 이들이 모여 사업의 방향성과 평가를 제시하고 문제의 해결점을 함께 고민하고 답을 내올수 있도록 한다.

2)여학생회 사업의 올바른 방향성을 내올수 있다.
몇몇 간부의 고민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아니라 기층간부들의 생생한 고민속에서 ㅇ학들에게 필요한 사업의 내용을 들을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는 것이다.

3) 여학 간부들의 지위와 역할을 찾고 책임성을 높여내며 질적 성숙을 꾀할수 있는 자리이다.
각 과 여학우대표의 지위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대표들도 그 역할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여대회를 통해 과 여대표에게 지위와 책임감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이는 과 여학우들의 목소리를 폭넓게 들을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과정이다.

4)여학생의 이익을 대변할수있고 끊임없이 사고하고 계획할수 있는 주체를 내올수 탄탄하게 자리매김 할 수있는 장이다.

5)총여 단여러여가 사업에서 통일된 감을가지고 사업을 계획 집행할수 있는 장이다.

6)단대 러여학생회 건설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또한 러여학사업에 대한 모범 공유와 전파로 이를 구체적 실정에 맞게 적용하여 강화 발전시킬수 있는 장이다.

7)여성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할수 있는 장이다.
여성이기에 당해야 하는 불이익과 사회제반에 걸친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고 조직적으로 해결 할수 있는 장이다.

목표

총노선과 일년의 사업을 기층과 함께 공유하고 이후의 전망을 수립하며 여학생회의 체계를 통한 사업의 시작임을 자각하고 체계강화를 위해 여학생대표자들과 함께 고민하고 해결살수 있도록 한다.
그리하여 기층여학우들과의 접촉을 통한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수렴하고 이것을 토댈호 여학생회 사업의 핵심 사안을 내올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한 과와 단대의 지도구심으로 실질적 여학우 대표기구로 총여학생회가 올바로 자리매김 한다.

3. 전여대회의 구성과 대의원의 자세

① 전여대회 대의원 구성은?
⇒ 과의 여대표, 즉 과여학생회장, 과여부회장, 과여학생부 부장, 단대 여학생회장
단대 여학생 위원장, 총여학생회장, 총여학생부회장
단,과에 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여연짱이 대의원이 된다.
*참관인으로 꼭 참석해야할 사람
--- 과여연 및 과여학 소모임 (탁아…), 과집행부, 단대간부, 총여간부
학년 여대표 그외에 여학우 모두 참관할 수 있다.
② 역할 - 여학생회 사업에 대한 의결 집행
③ 책임 - 있다.
④ 의미 - 여학생회 사업에 대한 직접적 참여로 인한 결정과 견제
⑤ 전여대회 의장 - 총여학생회장
⇒ 전여대회에서 광범위하게 수렴된 의견을 매사업에 녹여 내도록 지도,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를 집행할 수 있는 체계가 구성되어 있는 총여학생회 사업에서 회운영 전반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최고 책임자가 일원화된 체계로 움직여나가야 하기때문이다.

⑥ 대의원의 자세
1) 대의원은 총여학생회 강화에 책임있는 주체로서 참석해야한다.
2) 개인의 자격이 아니라 과여학우 대표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참석해야 한다.
3) 과여학생회의 발전을 위해 도움이 되는 여러 모임을 소개하고 이를 전파하는 여학생대표자로서의 책임의식을 가져야한다.
4) 전교여학생 대표자회의라는 최고의 의결기구로서 올바로 바라보고 풍부한 안건의 상정과 신중하고 책임성있는 발언을 해야한다.

4. 전여대회 행사 일정

식전행사
1) 영화제 ☞ 11시 - 4시
2) 단대시간 ☞ 4시 - 4시반
본순서 ☞ - 7시
1) 개회사, 인사말
2) 내빈 소개
3) 전여대회 의의,목표
4) 회칙 개정
5) 설문지 총화
6) 총노선, 사업 계획, 집부 인준
7) 단대여학생회의 총노선 및 인사
8) 모범과 소개와 1년 사업정형 설명
9) 일분 발언대
10) 폐회사
• 식후행사
대동풀이(식사)

여학생회의 지위와 역할

모든 여학우를 구성원으로 하며 직접 선거로 선출된 간부를 통해 운영되는 여학생회는 여학우들의 자주적인 지향과 요구를 실현시키고 여학생운동을 목적의식적이고 주도적으로 풀어나가는 여학우들의 자치기구이다.

그러면 여학우들의 자주적 지향과 요구, 여학생운동이란 무엇인가?

여성으로서 여학생의 존재

우리사회의 여대생이라고 하면 생존을 위한 노동으로부터 자유로운 특권적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질적인 여대생의 존재는 자유로와 보이는 겉모습과는 괴리되어 있다.

첫째로, 여대생은 근로여성으로서 자신의 지위를 바로 보지 못하고 허위의식에 사로잡혀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성본연의 임무는 가정일'이라는 이데올로기는 대다수 여성들에게 '결혼제일주의' 를 갖게 하며 이것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결혼에 대한 과도한 환상을 갖게 한다.

둘째로 여대생은 사회진출에 있어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성의 임무는 가정일'이라는 이데올로기는 여기에도 적용되어 여대생은 같은 자격과 능력을 갖추었다 해도 일단 임용에 있어서는 남성보다 뒷전으로 밀리며 어려운 경쟁을 뚫고 취직했다 하더라도 차별과 수모, 승진 기회의 박탈, 모성보호의 소홀 등에 의해 다시 가정으로 돌아오게 된다

이러한 성차별 이데올로기의 유포와 여성정책은 여성의 노동력을 초과착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며 전체 노동자의 임금을 저하시키고 있다.

셋째, 인간 관계와 자차활동에서의 소외이다.

여성차별정책은 교육과정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여대생은 스스로 왜곡된 의식에 길들여져 소극성, 의존성, 수동성이 강하게 나타난다. 이것은 대학내의 모든 자취활동, 학문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못하고 뒷전에 있거나 따라가는 모습으로 나타나며 대학내의 남성위주의 문화풍토, 공간등의 문제는 여대생의 소극성을 더욱 부채질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청년학생으로서 여대생의 존재

여대생은 일반적으로 전공학점 관리나 노트필기에 충실하여 성적으로는 상층이지만 연구의 깊이나 능력에 있어 남성을 따라갈 수 없고 끝까지 계속하는 사람도 없으므로 과의 발전을 위해서는 여학생이 적게 들어오는 것이 좋다는 말이 쉽게 나오고 때로는 이런 주장들은 여학생 자신들도 인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여대생들은 새것에 민감하고 정의감이 투철하고 진보적 사상과 이론에 민감한 청년학생의 특성도 갖고 있다. 소극적이지만 자신이 맡은 일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나 남녀공학에서 소수인 여학생들이 더 결집력이 높고 사회적 모순에 민감한 것은 이를 증명해 주는 것이다.

여대생의 부정적 모습은 주인다운 태도와 자주적인 의식 대신 결혼이 삶의 구원인 양 가르치며 여성에게는 아름다운 외모가 가장 중요하고 그 외 정치사회적 문제는 부수적인 것으로 키워져 왔기 때문이다.

청년학도로서의 여대생은 여성해방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는 지위와 조건을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여학생의 존재로부터 나오는 여학생의 지향과 요구는 다음과 같다.

사회민주화를 포함한 여성의 제반 민주권리 쟁취와 청년학생으로서 학문, 사상, 이론, 기술의 체득과 이로부터 사회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지향이다.

여학생운동이란?

여학우들이 자신의 사회적 처지를 옳게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집단적으로 노력한다면 여학생운동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노력들을 먼저 제기하고 풀어내는 것이 여학생이어야 함은 물론이다.

여학생운동은 지금까지 교육속에서 길러진 성차별 의식을 없애나가기 위해 남녀 공히 바른 여성관과 인간관을 심어줄 수 있는 교육내용을 획득하고 교과과정 속에 남아 있는 남녀 차별적인 내용을 일소해야 한다.

또한 제국주의에 의해 학원에까지 만연해있는 성폭력 문화를 추방하고 이를 대신할 건강한 문화를 개발해야 한다.

여학우들의 사회진출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 지금 사회진출의 기회를 평등하게 보장받으려는 노력과 함께 각 계급, 계층 여성들과 연대하여 여성모순을 야기시키는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

아니, 이렇게 좋은 일이?

방중에 학원자주화 추진위원회의 첫 힘을 실었던 <94 교육재정확보 및 등록금투쟁>이 힘차게 진행되었습니다. 방학중에 진행되어 학우들, 간부들과 공유하고 결의되지 못한 상황에서 투쟁이 진행되었습니다. 예년과 달리 올 94년의 등록금 투쟁은 등록금 투쟁이라는 협소한 의미가 아닌 교육재정확보 투쟁이라는 보다 크고 본질적인 문제로의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아무리 %를 낮추고 복지요구안을 관철시켜도 근본적인 등록금 문제의 해결은 이루어질 수 없으며, 국가를 상대로 한 교육재정확보 투쟁을 통해서만이 등록금 문제의 해결과 대학교육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다는 문제의식속에서 투쟁을 전개하였습니다.

한 달간의 투쟁이 1차적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많은 부족함이 있지만 성과도 컸던 투쟁이었습니다.

이번 투쟁을 통해 본관과의 기성회비 인상률 12.1%를 합의해 내고 기성회비 예결산 편성의 학생참여를 보장받았다. 또한 기성회비 중 일부를 대학발전기금으로 적립하고 학생복지 요구안을 최대한 반영토록 합의하고 이에 대한 공동 성명서를 발표할 것을 합의했다. 그리고 복지시설로 게시판 정리, 온라인 열람제, 매점 환경개선, 도서관 환경개선, 강의실 환경개선 등을 보장받았다.

이번 투쟁을 통해 총여학생회는 도서관 여학생 휴게실을 설치할 것을 요구하고 각 게시판에 총여학생회 독자 공간을 확보했으며 도서관에 여성 관련 직업 전문 취업정보센타를 열고 이에 따른 전문 인력확보를 합의해냈다.

현 취업정보 센타가 잘 활용이 되지 못하고 있고 여학우들의 여성 관련 직업 을 위한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 취업정보 센타를 보완하게 되었다. 그리고 도서관의 여학생 휴게실은 현재 추진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사업안을 계획하고 있다. 도서관 자치 위원회와도 간담회를 준비하고 몇 차례의 모임을 가지는 등 서로의 의견을 주고 받으며 진행하고 있다.

그밖에 여성학에 대한 교과과정 개편을 실시하려고 한다. 현재 하나밖에 없는 여성학 수업을 좀더 세분화해서 학우들이 교과과정속에서 여성문제를 배울 수 있도록 총학 학자추와 협의하여 본관에 요구할 것이며 총여가 주최하는 여성학 자주강좌도 계획하고 있다.

또 생리대 자판기를 확충하여 여학우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번 등록금 투쟁은 앞에서도 말했듯이 단순히 %협상이 아니라 국가를 상대로 한 교육재정확보를 이끌어 내는 것입니다. 이를 목표로 앞으로도 열심히 학우여러분들과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을 약속합니다.

우리도 함 튀어보장꺼롱
꺼롱 꺼롱 1

1. 과여학생회? 너무도 중요한 것이지요.

새내기들이 들어오고 인사할 일이 많습니다. "**과 여학생회장 누구누구입니다."라는 인사가 아직은 왠지 뻘쭘하고 낯설기도 하지요. 과에서 여학생회장의 자리가 무엇인지, 혹은 올해 무엇을 해야 할것인지 아마도 많은 생각을 할것입니다. 여학생회의 필요성이란 일단 이자리에서는 줄이기로 하고 '총'도 아니고 '단대'도 아닌 '과'여학생회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대학에서 가장 기본적인 생활의 근거지는 '과'입니다. 즉 과에서의 활동이 가장 기본적이며 학우들의 생활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학생들이 생활속에서 느끼는 문제나 바램이 있다면 모여서 얘기할수 있는 첫번째 자리가 과일것입니다. 즉 문제해결과 변화 역시 과로부터 시작될때 가장 힘있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여기에 과여학생회의 절실한 필요성이 놓이는 것입니다.

여학생회는 여학우들의 생활과 가장 가까이 있어야 하고 여학우들과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져야 제 힘을 낼수있기에 총여학생회와 단대 여학생회는 항상 여학우들의 생각을 이해하고자 애쓰고 또한 그들에게 직접 얘기하고자 노력합니다. 그러나 몇몇의 여학생회 일꾼들로는 역부족이지요. 과여학생회가 여학우의 모습이 어떠한지, 바램과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또한 그 요구들을 실현시킬수 있는 직접적인 만남의 장소인것입니다. 과여학생회는 여학우들간의 만남을 이루어 내는 것에서부터 혼자 해결할수없는 여학생의 문제를 풀어나갈 조직적 힘이 모여지는 출발점인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없다구요?

"나는 여학생회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라는 여학생회장님이 계십니다. 두려워 마세요. 이것이 우리과 여학우들에게 필요한 것인가, 우리과 학우들의 삶에 가치있는 것인가를 판단해보고 사업을 한다면 결코 잘 모르겠다고 사업을 못한다거나 자신을 잃을 필요는 없습니다. 여학우를 중심에 둔다는 원칙을 철저히 지켜가며 점차 사업속에서 부족한 부분을 메워 나가면 될것입니다.

여학생회장이란 우리 과의 여학우들의 손으로 선출된 여학우의 대표자입니다.

여학생회장님에게 주어진 한표 한표는 회장님에 대한 믿음의 의미이며 함께

하자는 의미가 아닐까요?

언제나 여학우에 대한 애정으로 한사람 한사람의 말을 귀담아 들으며 모든 일에 임해야겠지요.

여학생회장님 만큼이나 많은 역할을 해야하는 자리가 여학생회 집행부일것입니다. 사업을 해나가다 보면 일을 해도 과에서는 간부로 인정받는것 같지 않고 혹은 어떤일을 해나가야 할지 막막할때도 많고... 더구나 여학생회장님들처럼 보여지는 자리도 아니기에 이래 저래 힘든 자리이지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못받는다는 생각이 든다면 주눅들기 보다 더욱 당당하게 자신의 자리를 찾으십시오. 여학생회 일꾼들의 성실한 노력이 있다면 학우들속에서 여학생회가 뿌리내림과 동시에 여학 집행부의 자리는 안정될 것입니다. 언제나 학우들에게 입과 귀를 열어두고 또한 우리가 과 여학우들의 입과 귀가 되어야 합니다. 그속에서 일꾼의 역할과 자리는 찾아질수 있습니다.

자, 자신감을 잃지맙시다. 기쁘게 과 친구 선후배들에게 여학생회를 얘기합시다.

2. 한해 동안 무엇을 할까요?

과여학생회의 한해 사업계획은 마련되었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올 한해 이것만큼은 해보겠다는 목표를 정해두는 것입니다. 과내에서 여학생회가 무엇인지를 알려내는 것일수도 있고요, 여학생회 집행부들만큼은 확실히 여성문제에 대해 알아가는 한해가 되겠다는 것일수도 있습니다. 학우들과 지속적으로 토론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보겠다거나 탁아소모임을 통해 학우들이 함께 뜻깊은 일을 해보겠다는 목표도 좋습니다. 커다란 하나의 목표아래 일련의 사업들이 놓여지고 계획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올바른 성의식 확산을 가장 큰목표로 잡고 있다면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3월의 행사에서 새내기들의 성의식을 조사해보며 관심을 모아내고 대자보나 토론을 통해 올바른 성의식을 알려나갑니다. 성교육 간담회도 가능하겠지요. 이후 학우들속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실천사항들을 모아내어 여학생회가 주도적으로 풀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목표들이 사업에 관한 것만은 아닙니다. 여학생회장 혹은 집행부로 일하면서 나 자신의 목표를 세우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한해 사업이 끝났을때 여학생회 일꾼으로서 일했던 나에게서 무엇이 변화 발전할것인가를 생각해보고 나름의 목표를 가진다면 이는 일년간 끊임없이 자신을 받칠 큰 기둥이 될 것입니다.

3. 이런걸 해보면 좋아요.

아느정도만 역량이 된다면 여학생회가 나름대로 준비한 사업을 펼쳐봄으로써 과여학생회를 학우들에게 알려내고 여학생회 내부의 큰 활력을 찾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여학생회 집행부들에게도 함께하는 사업을 가짐은 각자의 역할을 찾아주는 계기가 될수 있겠지요. 매 사업에 있어 준비가 철처해야 함은 물론이겠지만 거창한 것을 계획하고 무리해서라도 밀어붙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소박한 형태라도 괜찮지요. 너무 결과에 얽매이지 않고 꼼꼼하게 준비해들어가며 많은 학우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다면 충분히 성과는 남을 것입니다. 뜻밖의 성과도 있을거고요. 다른과의 모범을 받아오는것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핵심적인 것은 과의 상황과 준비하는 일꾼들에 맞게 창의적으로 사업을 풀어가는것입니다.

현재 많은 과에서 진행중인 행사사업으로는 여학생 대면식, 성교육 간담회, 취업간담회, 소식지 발간, 기타 과행사에서 이루어지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런 점은 물론 기억해야겠지요. 이런 행사사업 역시 1년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계획되어져야 할것입니다. 이거나 한번 해볼까?하고 되는 데로 이것 저것 벌여서는 안되겠지요.

또 한가지, 일상적으로 과방에 기획자보를 붙이거나 화장실에 과여학생회 명의로 작은 알림딱지 하나 붙이는 것등이 결코 이에 못지 않은 중요한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4. 여학생회의 중요한 소모임.

여학생회의 사업에서 빼놓을 수 없이 중요한 것이 소모임입니다. 소모임은 여학사업의 성과물이기도 하며 또한 사업을 펼쳐감에 있어 중심적인 역할을 해나갑니다. 여학우뿐만 아니라 남학우까지 하나로 묶여질 수 있는 소모임이 다양하게 고민되어야 하는데 가장 보편적인 여성문제 연구반과 탁아소모임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여성문제 연구반 (여학생회 일꾼의 재생산)

많은 과에서 여연장이 학술부장을 맡거나 혹은 집행부로 있는데 이는 여학생회와 여연의 밀접한 관련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과학우를 대상으로 발표회를 가지고 학습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과내에서 여성문제에 대한 인식을 넓혀가고 여학생회를 튼튼히 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여연구성원이라면 여학생회의 필요성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인식해야겠지요.

여성문제 연구반은 단순히 학습만 하는 모임이 아니라 하나의 생활단위로서 학습을 통해 여성문제를 알아가며 이에 따른 실천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것이 학습내용의 공개, 공개 토론회, 발표회등으로 다양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과학우들이 "야, 여연도 대자보 좀 쓰고하지"하는 말을 던지면 "써놓는다고 보나?"라는 의문도 들겠지만 그것이 여연에 대한 관심이고 진정한 여연의 역할입니다. 함께 그 의미를 나누지 못한다면 아무리 훌륭한 학습도 그 가치의

반이 되는게 아닐까요?

*탁아소모임

탁아사업의 한 예를 들어 봅시다.

여학생 대면식에서 탁아의 현실과 필요성을 알려냅니다. 이후 탁아자원활동가를 공개모집합니다. 탁아자원활동을 해나가면서 탁아에 대한 충분한 내용공급이 필요하게 됩니다. 원활한 활동과 내용공급의 필요성으로 소모임이 이루어졌습니다. 탁아의 현실과 필요성을 알려내며 소식지 발간, 바자회, 쥐포팔기 등으로 학우전체가 탁아사업을 이해하게되었고 광범위한 후원회가 마련될 수 있었습니다. 과학우 전체에 기반함으로 소모임구성원들이 가지는 자부심은 굉장했다는군요.

장을 맞는 여학생회장님(다른 누구이든지)은 구성원과의 인간적인 결합을 이루어 내며 자원활동만 하는 곳, 혹은 학습만 하는곳이 아니라 구성원들의 생활적인 문제까지 함께 고민할수 있는 곳이 되도록 힘써야 할것입니다.

현재 탁아소모임이나 자원봉사활동을 생각하고 있는 여학생회라면 자원활동가모집부터 일단 하기보다는 소모임활동을 어떻게 꾸려갈것인가를 먼저 계획하고 시간이나 여건이 안맞는 학우들까지 소모임으로 함께 할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보는것이 좋겠습니다. 평소에 학습에 참여하고 어린이들과 야유회를 가거나 바자회를 하고 소식지를 만드는 이런 활동에는 함께 하는 것이지요. 어느 소모임에서와 마찬가지로 인간적인 결합이 중요합니다.

5. 학생회와의 관계.

과에서 여학생회장님의 위치가 애매한 과이거나 든든한 과이거나 할것없이 한번쯤은 학생회와의 관계를 고민하게 됩니다. 학생회와 여학생회의 사이가 나빠서가 아니라 정확한 역할에 대한 고민이지요.

신입생 환영회나 체육대회때에 여학생회는 어떻게 결합할까요?

우선은 여학생회가 자기의 내용으로 무언가를 할수 있다면 좋습니다.

그러나 과의 상황과 행사의 성격상 자기 내용으로의 결합이 어렵다면 전체 프로그램중에서 한 부분을 맡아 잘 풀어가는 것도 좋습니다.

이것도 어렵다면 준비과정에서 선전이나 장보기등도 거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같은 과에서 사업을 하는 간부들이니까요. 힘닫는데로 같이 하는게 좋지 않겠어요? 여학생회간부들이 자신의 관점을 명확히 가지고 있다면 "여학생회는 이번에 다른내용을 잡을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선전을 맡지요"라고 먼저 얘기할수도 있습니다.

단, 이때 "여학생회니까..."라는 관점으로 선전이나 장보기를 맡기는 학생회간부가 있다면 당당하게 애정어린 비판을 해주어야겠지요.

학생회간부를 대할때 우선은 서로 보듬어 안을 대상으로 바라보아야 합니

다. 인간적으로 친한 사람이 학생회장일 경우 별 오해없이 사업이 수월한 경우가 많습니다. 즉 학생회장과 여학생회장, 학생회 집행부와 여학생회 집행부간의 인간적인 만남과 이해가 많은 문제를 풀어가는데 앞서야한다는 것입니다.

앞의 얘기들을 정리해 볼까요.

첫째 과여학생회는 엄청나게 중요하고 여학생회장님은 언제나 과여학우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신감을 가지세요!

둘째, 큰 목표를 잡고 그 아래서 사업을 진행해나갑시다.

세째, 여학생회의 독자적인 사업을 만들어 봅시다.

네째, 여연이나 탁아등의 소모임을 창의적으로 이끌어가는것은 여학생회의 가장 든든한 원군입니다.

다섯째, 학생회 일꾼, 그들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동지입니다.

우리도 함 튀어보장꺼롱

꺼롱 꺼롱~~~2

1. 사범대 자연대 부학생회장님들 보셔요.

과 에서 부학생회장의 역할은 과마다 천차만별, 정말 빡시게 활동하겠다고 생각하면 할 일은 무한정이지만 그냥 예전에 했던 것처럼 자리만 지켜도 1년은 지나갈 테죠.

현재의 부학생회장 제도로는 정말 지위와 역할이 너무 애매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자신의 일이 없었던게 사실이었으니까요. 총회때 사회를 보기도 하고 서기를 하기도 하고, 행사때 음식 준비를 하기도 하고, 또 누구는 학생회장이 힘들면 위로해주는 그런 일도 해야 된다는 데...

이러한 어정쩡한 부학생회장의 지위와 역할은 올 한해 활동을 통해 명확히 잡아나갑시다.

먼저 여학생회 사업의 과주체로 섭시다. 그래서 탁아나 여성문제, 여학행사 선전도 해내고 소모임도 꾸려 봅시다. 과의 여학우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서도록 합시다.

휴우~~~ 벌써 부회장님들의 한숨소리가 들려오는군요. 맞아요. 부학생회장으로서 학생회장을 도와 과의 전반적인 일도 해야겠고 또 그 역할이 애매하다 하여 여학생회 사업도 하라고 하니 "나는 슈퍼우먼이 아니예요."라고 할 만하지요.

. 여학생회 사업을 한다고는 하지만 체계가 아니면서 두가지 일을 같이 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게 아니죠. 하지만 자신의 지위는 스스로 높여나가야 합니다. 여학우들의 대표자로, 여학생회 사업을 과학우들과 함께 해 나간다면 부회장의 위상도 그만큼 높아질 것입니다. 힘내서 열심히 해봅시다.

2. 어떻게 할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올 한해 이것만은 꼭 하겠다는 목표를 정하는 것입니다. 과에 여성문제에 대한 인식을 이루겠다는 것일수도 있고요, 우리과에서만큼은 음담패설을 뿌리봅겠다는 것일 수도 있겠죠. 나랑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을 한명이라도 만들어내겠다는 것도 좋습니다.

사업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이룰 목표도 정합시다. 내성적인 사람이라면 학우들을 많이 만나 이야기 하면서 활달한 성격으로 바꾸겠다는 것도 좋고요, 과간부로서 성실히 생활하겠다는 것도 좋습니다.

3. 무엇을 할 것인가.

1) 여연 건설: '우리 과는 여성문제에 관심있는 사람도 없고 나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하지?'라고 걱정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역사는 발전하는 것이니까요.

과학우들에게 자보를 써서 여성문제를 알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개인의 인식만으로 끝나버린다면 다시 한해가 바뀐 뒤에 여러분 다음의 부회장들은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 사람이 모여 여성문제를 함께 이야기하고 자신들부터 변화하고자 하는 모임이 만들어진다면 그것이 인식확산에 더 유용하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여연구성원들만 인식하고 끝나서는 안되겠지요?

스터디를 끝낸 후에는 꼭 공부한 내용을 세미나실에 공개합시다. 그리고 한달에 한번 정도는 비모임원들도 참여시켜 같이 토론하는 자리를 만들어봅시다. 2학기 과학술제때는 여연발표회를 열어 남녀 학우들과 함께 할 수 있다면 더 좋겠지요?

자세한 운영방법은 총여학생회 여연부장님께 연락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릴 것입니다.

2)탁아: 여학생회 사업중에 가장 학우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는 것이 탁아사업입니다.

탁아활동은 가난한 맞벌이 부부의 양육부담을 덜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여성이라는 이유로 전담하게 되는 자녀양육 책임을 탁아소를 통해 사회의 책임으로 전환하는 활동입니다.

과행사때 시간을 내어 정태춘씨 노래를 들려주고 자봉과 후원단을 모집해봅시다. 여성문제를 공부하는 여연이라면 탁아에도 무관심해서는 안되겠지요?

구성원들끼리 탁아소를 방문한다던가 자원봉사 및 후원 활동에도 참여하도록 부회장님이 잘 이끌어 줍시다.

탁아에 대한 문의는 총여 탁아부장에게로 해주세요.

3)성교육

여러 여성문제중 가장 심각한 것 중 하나가 성에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성폭력, 퇴폐향락문화와 연결된는 여성의 상품화 등...

그래서 총여에서는 올바른 성의식과 성문화정착을 위한 노력들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노력들을 과에서부터 펼쳐냅시다.

여연에서 성에 대해 공부를 했다면 꼭 자보로 공개합시다. 그리고 신입생환영회나 술자리에서 음담패설이 불려지고 음란한 게임이 벌어진다면 항의를 합시다. 항의라고 해서 팔 걷어부치고 상 뒤엎으라는 게 아니죠. 우리가 불쾌해하면서도 항의하지 못하는것이 분위기를 깰까봐 그러는 것이 아닙니까?

음담패설을 부른다면 다 부를때까지 내버려 둡시다. 그리고 노래가 끝난뒤에 "자신은 그런 노래를 들으면 불쾌하다. 당신은 어떻냐? 그 노래속의 여자가 당신 애인이나 여동생이라고 생각해 봤느냐, 이런 작은 노래가 성폭력을 일으킨다면?" 등 차분히 자신의 논리를 폅시다. 상대방이 수긍을 한다면 다행이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재미로 습관적으로 하는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그럴때는 일단 그 자리에서의 논의는 접고 앞으로 계속 이야기 해보자는 식으로 마무리합시다. 한번의 항의로는 아무 소용이 없죠. 지속적으로 제기를 합시다. 그러면 적어도 여러분들 앞에서는 그런 노래를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남, 여)이 틀림없이 더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자신의 지지자로 만들어 둡시다. 여연이라면 더 좋겠지요.

욕심이 난다면 과에서 성토론회나 강연회를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때는 왜

이런 행사를 하는지 충분한 설명이 되어야 많은 사람들이 오고 효과도 클 것입니다.

4)취업간담회

여학우들이 가장 깝깝해 하는 부분이지요. 그렇다고 뾰족한 수도 없고...
그렇지만 여학우들의 대표자로서 가만히 보고만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2학기 학술제때나 따로 날을 잡아서 취직한 여선배들과 간담회를 열어봅시다.
그래서 준비는 어떻게 했으며 직장에서의 어려움은 없는지, 특별히 여자로서 당하는 부당대우는 어떠한 것들이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등 작지만 아주 중요한 것들을 진지하게 이야기 해보는 자리가 있다면 여학우들에게 큰 힘이 되고 그들이 사회에 나간다면 여성차별이 훨씬 줄어들지 않겠어요?

5) @자기 과방이 있는 칸 여자 화장실에 생리대를 쌀 수 있는 종이를 여성문제와 함께 과 명의로 비치해 두는 건 어때요? 환경운동도 되구요.
@우리 학교에 있는 여성학 수업인 여성과 사회를 학우들에게 권해봅시다.그리고 필요한 자료를 소개해 준다면 더 좋겠지요.
@여러분 뒤에는 단여와 총여가 있습니다.소모임구성원들과 함께,아니면 행사때 코스로 정해서 여학생회를 방문한다면 과사람들이 여학생회를 가깝게 느낄 것입니다.
@생리 휴가 폐지 등 시사적인 여성문제에 항상 관심을 가집시다.
@ 일상적으로 과에 칸을 확보하여 여성문제에 대한 자보를 붙여둡시다.글만 쓰지 말고 만화도 그리고 흥미있는 내용으로 학우들이 읽고 싶도록 만듭시다. 취업정보와 함께라면 더 좋겠죠.
@ 여연이나 탁아를 꾸리기가 어렵다면 TV모니터모임이나 잡지 스크랩 모임 등 다양한 소모임을 만들어봅시다.

과 회장님이나 집행부가 여러분들에게 왜 부학생회장이 여학생회 일을 하느냐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그런 말을 하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자신의 입장과 고민을 충분히 얘기하여 동의를 얻어냅시다. 그리고 독자적인 행사를 하기가 힘들다면 과행사속에서 내용을 녹여낼 수도 있겠지요. 뒷풀이 프로그램을 부회장님이 준비하여 이상한 게임 없이도 즐겁게 놀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은 어때요?

4. 자 여러분들이 할 일이 이렇게 많네요.

너무 부담스럽지요? 그렇지만 어이 하리! 내가 하지 않으면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인 것을.....
여기에 있는 것이 꼭 모범답안은 아닐것입니다. 과에서 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내용을 고민합시다. 그리고 꼭 명심합시다. 행사를 아무리 멋지게 기획해도 학우들이 참가하지 않는 행사는 결코 성공할 수가 없듯이, 행사를 하나 더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평소에 얼마나 학우들을 만나고 그들과 가깝게 지냈느냐, 그들이 얼마나 자신을 믿고 의지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요.

과 여학우들에게 인정 받기는 쉬우며
여학생회 사업을 성과적으로 진행하기는 어렵고
쉽게 지쳐 나가 떨어지기 쉬운 간부의 모습

1. 자신의 경험을 앞세워 자신의 판단에 의존하여 모든 사안을 결정하는 간부
2. 전체의 이익보다 자신의 이익을 중시하는 자유주의, 개인주의적인 간부
3. 학우나 다른 간부에게 사업을 적절히 배분치 못하여 다른 이들이 할 일이 없도록 만드는 간부
4. 항상 피곤하다는 말을 입에 올려 동료를 부담스럽게 하는 간부
5. 비판 받기를 두려워하거나 지나치게 결백해 모든 사업에 완벽해 보이려는 간부
6. 항상 서두르는 모습으로 동료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주는 간부
7. 하루종일 빈둥거리며 자기 일을 찾지 못하거나 끝없이 게겨서 다른 바쁜 이의 속을 상하게 하는 간부
8. 얼마나 잘, 열심히 일을 성과적으로 마차는가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빨리 마치고 놀까를 고민하는 간부.
9. 자기 일에만 매몰되어 전체를 돌아볼 줄 모르는 간부
10. 자신의 책임을 완수하지 못해 전체 일에 지연을 주어 다른 간부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는 간부
11. 공부하고 연구하지 않는 간부
12. 옆에 있는 간부를 개보듯이 무관심한 간부

과 여학우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총 63부 수거)

이 설문지는 전여대회를 준비하면서 총여학생회가 과에서 직접 학우들과 생활하는 과간부 여러분들의 여학생회에 대한 인식정도와 여학우들의 의식, 전여대회를 잘하기 위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1. 요즘 여대생들을 보면 예전에 여성문제라고 이야기하던 소극성이나 결혼 제일주의등의 모습이 많이 없어진 듯 합니다. 자신의 생활에 열심이고 과생활에도 열심히 참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과에서 보아온 여대생들의 일반적인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전에 비해 변한것과 변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전체적으로는 여대생들의 변화를 인정하였다. 예전에 비해 소극적인 모습은 많이 없어지고 자신의 분야에서 열심이려는 모습을 보이며 자기 주장도 당당히 내세울 줄 아는 등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하지만 그러한 변화가 자신과 관계된 것에만 열심이고 여전히 버티고 있는 사회적 조건 속에서 부딪혀보기 보다는 현실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강하고 적극적 삶을 여럿이 아닌 개인적인 삶으로 한정시키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우리 간부들이 눈여겨 볼 대목이 아닌가 한다. 여대생들 개개인의 자주성과 책임의식이 성장했다면 이제 어떻게 이것을 과로 모아내어 과에서 그들이 주인으로 살아가도록 할 것인지, 매 사업에서 어떻게 이들의 참여를 유도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한편 부정적인 의견도 많이 나왔다. 여전히 소극적이며 참가는 하되 뒤에서 구경하는 식이며 고학년이 될수록 과에서 떨어져 나가 시집잘 갈 궁리만하고. 예전보다 결혼 제일주의가 더 심해졌다고 보는 이도 있었다. 이것은 개개인의 의식은 성장했지만 사회적 여건은 별로 변한게 없어서 그 안에서 혼란스러워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그렇다면 사회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활동은 무의미한 것일까? 분명히 아닐 것이다. 사회는 결코 저절로 변하는 것은 아니며 오늘날 이만큼의 변화도 이조 여인들의 눈물과 한을 딛고 이루어낸 것이니까. 우리가 여학우들에게 여성문제를 이야기해서 단 한명이라도 알게 된다면, 그런 사람이 많아진다면 분명 사회는 바뀌고야 말테니까!

2. 과에서 여학생들이 어느 정도의 지위를 갖고 있습니까?

여기서 지위라는 것은 간부의 숫자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과에서 여학생들이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갖고 있고 그들의 활동이 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교수님이나 과사람들이 여학생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다.

높다라고 답한 사람이 24명, 같다가 6, 낮다가 26으로 나왔다.
높다라고 답한 사람 중에는 집부를 거의 여학생들이 하고 있다, 또는 과의 대부분이 여학생이다라고 답한 경우가 많았으며 발언권이 세다, 일상생활에서 기죽지 않고 산다도 있었다. 반면 낮다라고 한 사람은 수는 많지만 중요한 결정은 남학생들이 다 하고 집부를 하는 여학생 자신도 남자가 있어야 일이 잘된다는 생각을 한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집부를 하는 여학생과 그렇지 않은 여학생간의 분리 현상이 있다고 하였다.

3. 과에서 사업을 할때 가장 막히는 부분은 무엇이고 총여(단여)가 해주었으면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예-여연에 대한 지도, 간담회, 세로모임 등)
막히는 부분은 학우들의 관심부족과 낮은 참여도가 16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밖에 경험과 내용부족, 방법 고민이 4명, 사람부족 2, 돈문제 4, 여학 필요성을 못 느낀다 3, 남녀 편가르기 식의 시각 2로 나왔다.
행사에 학우들이 적게 오면 힘빠지고 서운한것은 당연할 것이다. 하지만 왜 학우들이 오지 않았을까에 대한 고민이 충분히 되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일년내내 힘빠져 할 것이다.
정답은 없다. 다만 학우들과 가깝게 지내면서 그들의 의식을 읽어내고 그것을 정확히 파악하는 수밖에 . 앞에서 일을 하는 우리가 그들의 자리를 만들어주고 그들과 함께 하려 한다면 언젠가는 학우들도 우리에게 웃어 줄 것이다.
총여(단여)에 바라는 것은 여연지도가 12, 취업정보나 간담회 3, 탁아가 4, 집부교양 2이 나왔고 그밖에 거리토론회, 강연회, 간담회, 홍보, 여학우를 위한 시설, 여학우들의 놀이문화가 있었다.

4. 자신이 생각하는 여성문제는 무엇이고 그중에 무엇이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문제(성차별, 동등한 인간관계의 장애, 성폭력)가 22명으로 가장 많았고 여성의 소극성(여자가..., 열등감, 컴플렉스)가 18명으로 다음이었다.
기타 여성의 인식 부족이 11, 취업이 7, 잘못된 여성해방 2, 남성의존적 사고 2, 대안부재 1, 가사노동 1로 나왔다.

5. 과여학생회(부), 여부학생회는 아직 과에서 이렇다 할 사업을 못찾고 소모임 중심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여대회에서 숨겨져 있는 과여학 사업을 소개하고 과 사업의 정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자신의 과에서 시도한 것이나 알고 있는 사례가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작성자의 생각과는 달리 참으로 많은 사업들이 쏟아져 나왔다.
성폭력 토론회, 과룸 금연, 계획서, 평가서, 비디오 상영, 여학생 대면식, 여연 발표회, 탁아, 취업간담회, 계 등
이제 과도 자신의 역할을 찾아가고 있거나 찾아가고자 하고 있다는 증거일 것이다.

6. 사범대와 자연대만 대답해 주세요. 과에서 여부학생회장 체계로 있으시면서 자신이 여학생들의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신이 생각하는

여부학생회장의 지위는 어떤 것입니까?

총 20명중 여대표로 생각한다가 5, 않는다가 10으로 나왔다. 그런데 여부학생회장의 지위는 여학우의 의견을 수렴하고 여학우들의 단합을 돕는 자리, 학생회장을 도와 과를 이끄는 자리라는 대답이 골고루 나왔다. 그리고 학생회 일과 여학생회 일을 같이 할려니 이중부담이라는 답도 있었다. 이는 그 체계와 역할의 불확실로 부회장 스스로도 혼란스러워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름이 그렇지 않은데 여대표의 역할을 한다는 게 이상하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 지금처럼 애매한 부회장의 지위에서는 과에서 여성문제를 풀어내는 여대표로서의 역할이 부회장의 위상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7. 단여나 총여에서 하는 사업을 접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것들입니까? 앞으로도 계속 전개했으면 하는 사업은요?

가장 많은 것은 역시 대동학교로 16명이었고 그밖에 자보, 탁아 바자회, 화장실 휴지, 비상벨, 분리수거, 자치교실, 강연, 취업학교, 로젤, 성교육, 간담회가 있었다. 그런데 대동학교와 함께 총여의 2학기의 큰 행사인 대동한마당은 3명밖에 되지않아 대동학교와 대조를 보였다.

이는 2학기라는 시기적 조건의 어려움과 대동한마당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8. 접해보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관심 (나와 별개 포함) 14, 시간이 없어서 3, 기회가 없어서 2, 홍보 부족 2, 편협해질까봐 1 순이었다.

9. 자신이 생각하는 여학생회는 어떤 지위와 역할을 가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여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들의 지위와 이득을 보호하는 곳이다가 24명, 여성문제
(학내 성차별 문제, 올바른 여성상 등)를 인식시키고 해결하는 곳이 13명이었다.

총여에 대해 써 주신 분들도 있었는데 여학우들의 대표체로 앞에서 이끌어가는 곳이다, 총학을 뒷받침하는 곳이다 라는 의견이 있었다.

10. 여학생회는 총여, 단여, 과여의 체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단여가 과를 지도하는 곳이란 생각을 가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다면 왜일까요?

있다가 28명, 없다가 23명이었다. 인문대는 거의가 지도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으며 다른 단대는 반반이었다.

지도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중에는 세로모임이나 운위를 통해 과여학우들의 의식이나 활동에 대한 감을 공유하는 노력을 더해야 한다는 당부를 한 사람도 있었다.

없다는 이유에는 과특성에 맞는 지도가 부족했다, 연대감이 없다, 접하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남성 중심의 지도체제와 여성들의 소극성, 학생회에 더 비중을 두기 때문 등의 이유가 있었다.

지도가 아니라 도와주는 곳이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지도의 의미를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과 특성이 다양하므로 개별적 사업은 과에서

결정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단대에서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다른 과의 사업이나 어려운 점들을 함께 풀어내고 사업의 방향과 내용을 의논한다면 지도단위라 해도 무방할 것이다.

11. 총여는 과여와 같은 일을 하고 있고 과여를 지도하는 최고 단위라는 생각을 가져보셨습니까? 없다면 왜 그럴까요?

있다가 25, 없다가 22로 나왔다.

과여학생회의 최고 단위는 당연히 총여라고 생각하지만 편차가 심한 과의 모든 것을 결정할 수는 없는 것이 난점이라고 지적해주었다.

생각 해 본 적이 없는 이유에는 과실정과 맞지 않는다, 영향력이 없다, 감이 뜬다, 총여 행사에 참가하고 끌려간다는 느낌, 총여 사업의 보조기구라는 느낌이다 등의 의견이 있었다.

아직까지 단여보다는 총여가 많이 멀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고 당연한 일일 수도 있다.

하지만 세 단위가 좀 더 일체감을 갖고 함께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 특히 총여가 힘을 써야 겠다.

12. 그간에 총여를 보면서 문제라고 느낀 것은 무엇입니까?

멀게 느껴짐(공감 부족, 직접적 도움 부족 등) 19, 홍보 부족8, 활동이 안 보임 7, 대범하지 못함 2, 정치적 여성문제에 치중 2로 나왔고 그밖에 뿌리가 얕다, 2학기 활동이 없다, 총학의 보조, 성폭력 치중, 대안 부재 가 있었다.

총여 간부들이 주의해서 볼 문항이다. 과와의 거리감을 좁힐 방안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과에서도 총여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고 주체적으로 참여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13. 총여가 8대를 거쳐오면서 많은 사업들을 하였고 기층간부들과 함께 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과와 함께 하는 면이 많이 부족하고 전체가 통일된 감으로 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총여에서는 전여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총여가 7천 여학우의 이해와 요구를 기반으로 사업을 펼쳐나간다고 했을때 7천을 대표할 수 있는 이들은 더욱 중요한 지위를 부여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대표자들이 모여 서 여학에 대해 논의를 하고 함께 사업을 계획하는 전여대회는 매우 의미있는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열리는 전여대회는 어떤 의의를 가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 의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전여대회는 어떻게 준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간부들에게서 전여대회의 의의를 듣고 싶었다. 아무리 총여가 행사를 열더라도 과의 공유를 얻지 못한다면 사상누각일테니까.

과여학생회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간부들의 결의를 모으는 자리, 단합대회, 과학우들의 의견 반영하고 수렴, 가까운 총여의 계기와 자리매김, 과여와 단여의 통일, 7천의 이해와 요구를 논의하는 첫자리, 모이는 자체에 의의 등으로 전여대회를 생각하고 있었으며 준비방안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을 내주었다.

한사람 한사람에게 의의를 설명하여 과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철저한 홍보로

무엇을 할지 고민하도록 해야 한다, 재미있게 해야 한다, 논의 사항을 빡시게 전달하여 대표들이 학우들의 의견을 듣고 얘기할 여유를 주었으면, 대회가 끝나고도 교류의 길을 마련해야 한다 는 의견을 내주었다.

전체 여대표자들이 모여 한해의 사업을 결의하고 서로의 고민을 주고받으며 함께 할 수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전여대회가 과, 단여, 총여가 서로 유대를 느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제 9대 자주 총여학생회 총노선

1. 여학생운동이란?

여학생 운동은 여학우들의 자주적 지향과 요구를 실현시켜 나가고 학원내에서 여학우들의 역할을 높여나가는 것을 자신의 목적으로 하는 대중운동이다.
또한 여학생운동은 여학생들에게 주어지는 사회적 제재와 구속,소극성 때문에 생활속에 깊이 밀착하여 하나하나 깨우치고 함께 나아가는 대중운동의 원리를 구현해야 한다.

이는 여권신장주의의 의미를 가지는 페미니즘과 확연히 분리되는 것으로써 여학우들의 자주적 요구를 짓밟는 미제국주의자와 지배세력을 반대하고 자주,민주,통일을 위한 변혁운동과 밀접히 결부되어 그 속에서 여성의 사회적 해방과 남녀평등을 실현시켜 나갈것을 자기의 방향으로 갖는다.

이러할때 여학생운동은 여학우 대중을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자주 민주 통일과 여성해방운동의 주체로 일으켜 세우는 대중의식화, 조직화사업,투쟁사업을 1차적 임무로 한다.

여학생운동은 지금까지의 제도교육속에서 주입받아왔던 성차별의식을 없애나가기 위해 남녀 공히 바른 여성관과 인간관을 심어줄수 있는 교육내용을 쟁취해야 한다.

그외 교과과정속에 있는 남녀차별주의적 내용을 일소해야할 과제가 있다.

또한 제국주의에 의해 학원에까지 만연해 있는 성차별 성폭력 문화를 학원에서부터 추방하고 이를 대신할 건강한 문화를 양상한다.

여학우들의 사회진출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아진 지금 사회진출의 기회를 평등하게 보장받아야 한다.

그리고 기층 민중여성의 생존권 투쟁의 지지,지원및 각 계급계층 여성과의 연대를 통해 여성모순을 야기시키는 지배계급에 대한 투쟁을 벌여낸다.

2. 부문계열운동으로써의 여학생운동

여학생회는 학우들의 생활,학문,투쟁의 공동체인 학생회속에서 여학우들이기에 느끼는 어려움을 주인이 되어 집단적으로 풀어나가는 여학우조직이다.

이러한 움직임을 여학생운동이라고 하며 이는 학생운동속에서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부문계열운동이다.

애국적인 지향과 요구가 드높은것은 청년학생의 특성이라 할 수 있다.

그들의 생활 곳곳에서 나타나는 애국적인 지향과 요구를 높여내고 모아내며 이러한 힘이 전체학생운동을 강화발전시키는 측면에서 부문계열운동은 그 중요성이 더해진다고 하겠다.

여대협의 성폭력 근원 주한미군 철수투쟁,전사련의 임용고시철폐투쟁, 공대의 민족과학기술운동등은 학우들의 다종다기한 이해와 요구를 전공별로, 또 특수한 처지에 따라 풀어나가는 부문계열운동의 모범이라 할수있다.

이러한 학생부문계열운동의 성격과 내용은 전체학생운동을 풍부화 대중화 시킨다.

또한 사회 전문분야로 진출하는 예비 사회인인 학우들을 민주적이고 애국적 시민으로 양성한다.

학생부문계열 운동으로써 여학생운동이 청년학생운동을 어떻게 강화 발전시켜 내는가를 보자.

첫째로 여학생운동은 청년학생 운동의 대중화에 기여한다. 청년학생 운동에 동참할 만큼 선진적인 정치의식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나 생활 속에 나타나는 여성문제에 대해서는 민감한 여학우들이 많다. 이들의 이해와 요구에 맞게 여성문제 연구 소모임을 만들고 탁아자원 봉사 활동등의 최소의 실천경험을 쌓아 자주적인 활동성을 높여내게 한다. 이런 자주적 활동의 경험이 전체 운동에 대한 의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청년 학생운동의 대중화에 기여하는 것이다.

둘째로 여학생운동은 청년학생운동을 직접적으로 강화시킨다. 여학생회에서 성폭력퇴치 투쟁을 할 때 단순히 남녀 학우들의 의식개혁, 가로등 확충, 규찰대를 해결대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윤금이씨 투쟁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사회 성폭력의 근본 원인이 주한미군이고 문민정권의 본질이 사대 매국정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여성문제의 근본원인을 바로 보고 투쟁한다면 여학생 운동은 청년학생운동을 직접적으로 강화시킨다. 지금까지 경대

여학생 운동은 내용적으로 조직적으로 많은 발전을 해왔다. 하지만 아직도 여학생회 사업을 하는데 있어 학생회와의 관계에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여학생운동에 대한 몰이해, 또는 전체 운동 속에서 여학생운동의 위치를 못본다든지 이러한 것으로 일꾼들이 힘이 빠지거나 서로간의 감정대립으로 까지 가는 경우도 많다. 여학우들이 여성문제를 느끼는 곳에 이를 극복하려는 모임이 건설되고 자주적인 노력은 전체운동의 방향 속에서 진행되어야 하는 것임을 볼때 학생회., 여학생회 일꾼은 부문운동으로서의 여학생운동을 바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상으로 여학생운동의 개괄적 정의와 임무, 부문운동으로서의 여학생운동을 살펴 보았다이는 우리 일꾼들이 여학생회의 1년의 사업을 함에 있어서 여학우들의 자주적인 이해와 요구를 찾는 것으로부터 이의 해결을 위한 투쟁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특히 틀어쥐어야 할 것은 여학우의 자주적 삶을 실현시키고 전체 운동을 강화발전시키는 여학생운동의 자긍심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러한 여학생운동에 대한 자긍심이 여학생회 일꾼이라는 자긍심이 될 것이며 과의 여학우, 단대의 여학우, 7천 여학우를 책임지는 힘이 될 것이다.

3. 당당한 자주여성, 나의 주장을 우리의 행동으로

① 오렌지족으로 대표되는 한탕주의, 이기주의의 왜곡된 신세대의 이미지를 거부하고 자신의 생활에 당당하며 주인됨을 잃지 않는 복현여성

민족경북대의 많은 여학우들은 '신세대 여성'을 진취적이고 자신의 삶에 당당할 줄 아는, 사회에서 제 몫을 해내는 여성으로 규정하고 있고 스스로도 이러한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이 사회의 여성에 대한 차별, 불평등을 알기에 남학우보다 두배, 세배의 노력으로 취업준비를 하고 있으며 유행에 따른 옷차림이기보다는 대학인의 기본적인 생활자세에 어긋나지 않는, 자신에게 어울리면 티셔츠 하나라도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당당함을 가지고 있다.

② 여성을 상품화시키는 성폭력문화 추방의 의지모아 당당히 일어서는 복현여성

아우토반 나체잔, 나체라이터, 야한 사진, 포르노 비디오, 야한 농담, 북문, 정문 앞의 음란서적---경대주변은 그야말로 완전히 성폭력에 노출되어 있다. 때문에 이미 우리들의 생활은 성상품화의 생활에 적극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편승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것들을 더이상 지켜볼수 없다며 일어난 복현의 당당한 여학우들이 있다. 그들은 북문앞 성상품화실태에 대한 조사를 하고 학우대상 불매운동에 대한 서명운동을 벌이고 직접 업주와의 면담을 통해 야한 사진을 철거하고

컵을 없애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제 이런 여학우들을 복현골 어디에서나 볼 수 있다. 자신의 생활 근거지는 스스로가 지켜나가겠다는 주인의식으로 복현여학우들이 있는 곳이라면 성폭력 문화 추방의 노력이 시작될 것이다.

③ 여학우들의 생활 근거지인 과에서 전체를 위해 자기 역할을 맡으며 선배이자 후배로 성실히 생활하는 믿음직한 복현여성

인문대 여학생회에서 가을 학맥제때 '내가 만난 인문여성'을 주제로 3분 말하기 대회를 열었다. 거기서 대상을 탄 학우는 93학번 여학우였다. 그 얘기의 내용은 대학을 처음 들어와서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할 지 고민할때 가장 가슴따뜻하게 들어준 이들이 과 선배 언니들이었고 함께 과 예술제를 준비하면서 힘든 일도 마다않고 자기가 맡은 역할을 척척 해내며 그 와중에도 후배를 챙기는 살뜰함이 너무나 존경스럽고 고마왔다는 것이다. 그 후배는 말을 다 마치지도 못하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이 모습은 '과에 여자가 많이 들어오면 안돼'라는 인식과 상당한 차이를 보여준다. 이는 비단 그 과만의 특수성은 아니다. 마음이 따뜻하여 주위의 아픔을 잘 느끼고 후배를 챙김에 있어 정성을 다함은 여학우의 좋은 장점이다.

많은 여학우들이 과에서 소모임의 장으로 , 학회의 주체로 과를 이루는 중요한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나 이제는 과 학생회장을 여학생이 하는 것도 그리 어색한 일이 아니다. 또한 이들은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과를 훌륭히 이끌어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④ 여성의 현실을 어렵게 만드는 정권의 본질을 바로 보고 당당히 비판하고 요구할 줄 아는 용기있는 복현여성

문민정부가 출범한지 벌써 일년이 다 되어가지만 문민정부는 지난 일년동안 우리 여성에게 조금도 보탬이 되지 못했다. 몇년에 걸쳐 여학생회와 여성단체에서 추진해 왔던 올바른 성폭력 특별법제정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말 국회에서 통과된 성폭력 처벌법은 정조관념을 기본으로 삼고 있고, 피해자의 인권보호 측면이 미약한 눈가림식의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시간제근로 합법화, 생리휴가 폐지, 성차별고착화하는 신인사제도 용인등 문민정부의 본질은 여실히 드러났다. 윤금이씨 사건을 접하면서 정권이 자주성을 지켜나가지 못한다면 이땅 어느 누구도 성폭력의 주범 주한미군의 폐해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현재의 김영삼정부 또한 최소한 독립국으로 가져야 될 수사및 재판권의 포기와 살해 마군을 보호하는 것으로 보아 조금도 자주적인 정부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때문에 성폭력문제에서부터 취업문제로 자살하는 여대생의 현실까지 문민정부가 귀담아 들을 자세가 되어있지 않다면 우리 여학우들은 당차게 외쳐야 하고 요구해야 할 것이다.

제 9대 자주총여 총노선

여학생운동의 자긍심으로 여학우 삶 속에서의 자주성 고양을 통해 민족 복현 당당한 자주여성의 삶을 실현한다.

@@기본과제@@

1. 총여학생회를 실질적 대표기구로 세운다.
2. 단대의 자립자활력을 높여낸다.
3. 생활단위 학회 소모임을 안착화시킨다.
4. 일상사업을 강화한다.
5. 올바른 관점에 입각해 여학생 운동을 풀어나가기 위해 간부혁신을 이룬다.
6. 생활속에 실천하는 여학생운동을 창출한다.

1. 총여학생회를 실질적 대표기구로 세운다.

「문제점」 이제껏 중앙운영위가 경대 여학생회의 실질적 대의기구로서 총여사업을 고민하고 결정하는 단위였다. 그러나 중앙운영위만으로는 편차가 심한 단대의 상황을 다 파악할 수 없고 실지로 기층 과까지의 지도와 사업공유가 미비했다. 총여학생회가 실질적으로 여성문제를 칠천의 힘에 근거하여 풀어나가는 대표조직으로서의 위상을 갖추려면 칠천 여학우 한사람 한사람의 이해와 요구를 담아낼 수 있도록 과의 주체를 만들어내고 그 역할을 높여내야 한다. 이에 총여는 여학우 대표자들에 기반한 여학우들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모아내고 실천적 과제로 함께 하여 칠천에 근거한 대표조직으로의 위상을 높여내야 한다.

「방도」

1). 전교 여학생 대표자회의를 성사시킨다.

전교여학생 대표자회의는 몇몇 간부들만의 고민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학우들에게 필요한 사업의 내용을 들을 수 있는 자리이다. 또 각 단위 여학우 주체의 지위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한 여학생회(부)장이나 여부회장의 지위를 제대로 찾아 여대표에게 지위와 책임을 부여하고 과여학 사업의 모범을 소개하고 과여학 사업의 정형을 마련하는 토대가 되어 여학일꾼들의 질적 성숙을 꾀하는 자리이다.

또한 단대,과 여학생회건설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여성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장이 될 것이다.

2. 단대 계열 운동의 활성화로 단여의 자립자활력을 높여낸다.

「문제점」 단대가 자립자활력을 가질려면 먼저 과여나 여대표에 대한 지도력을 담보해야 한다. 이는 단대 여학우의 구체적 실정에 기초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며 각과의 수준에 맞게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과를 강화시켜 내야 한다. 그리고 중앙의 사업이 과여의 강화에 복무할 수 있도록 자기 단위의 목표를 가지고 끝까지 지도해 내어야 한다.

또한 단대학우들의 요구를 잘 수렴하여 중앙으로 통일시켜 내야 한다. 단대는 중앙의 사업을 전달하는 단순한 통로는 아니며 중앙의 내용 마련의 풍부한 옥토이자 중앙 사업을 단위에 맞게 실현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윤활유와 같은 것이다.

마지막으로 단대의 실정에 근거한 전문적인 영역을 확보해야 한다. 사범대의 여교사 문제 와 같은 계열운동의 독자성을 살려 볼 수도 있겠고 그것이 학문의 영역만으로 고민을 할 게 아니라 단대의 정서와 특성에 근거한 내용으로 일상사업이나 시기별 사업에서 녹여내야 한다.

「방도」

1). 단대 여학이 과여의 지도력을 담보하기 위한 과여학생회 연구 소위원회의 강화 및 분화

과여생회 건설 강화를 위한 소위원회가 달별 과사업 정형을 마련하였으나 전단대에 똑같은 내용으로 내려져서 실질적인 적용이 많이 어려웠으며 막바로 과로 내려감으로써 단대의 과지도력 담보라는 측면에서 많은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제는 인문대 사회대를 중심으로 한 과 여 집행부체계가 마련된 단대와 사범대 자연대를 중심으로한 여부회장 으로 된 단대,단대 여학이 없는 곳에 대한 지침을 분화해서 마련하고 이를 단대로 내려 단대회장님들이 과실정에 맞게 직접 지도해낸다.

2) 여연연구단위를 통한 내용적 지도로 각 단위가 여학우에 근거한 자립적이고 전문적인 내용으로 사업에 가져가게 한다.

단위에 정책이나 연구단위가 마련되어 단위 실정에 맞는 내용과 정책이 생산되어야 하나아직 단대의 역량이 여기까지 미치지 못하므로 중앙연구 단위로 집중을 하고 단위에 필요한 내용을 생산한다.

3) 세로모임의 안착화를 통한 집행력의 강화

각 단위의 집행단위가 튼튼히 서지 못하다보니 단여짱이 중앙의 내용을 단대에 푸는 데에도 힘겨움이 들었고 실무부담까지 하게 되었다. 집행단위가 전문성을 가지고 여학생회를 내용적으로 풍부화하기 위해서라도 일관된 부서의 세로모임은 꼭 필요하다. 이속에서 중앙단위의 내용이 각 부서를 타고 전면적으로 공유되며 특히 각 부서의 독자적인 전문성을 꾀할 수 있는 장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단대간부의 내용성 부족은 결코 단여 회장의 지도성 부족에 기인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총여, 단여, 과여가 세로모임이라는 형식을 타고 전문성을 담보했을때 단여회장은 실무부담을 덜고 내용의 고민과 전체 여학생운동 속에서의 단위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3. 여학우의 이해와 요구가 녹아나는 다양한 생활단위소모임을 건설, 안착화한다.

「문제점」 스스로 자신의 삶을 개척하기 위해 애쓰는 여학우의 모습은 굉장히 긍정적이나 이것이 개별적이고 과가 생활근거지가 되고 있지 못하다. 또한 탁아활동에 대한 학우들의 요구는 많은데 단위주체의 부재로 소모임으로 안착화시킬 지도가 없었다. 여연이 건설된 과는 많으나 개개 여연별로 진행되고 있고 책읽고 토론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제는 여연을 생활단위 소모임으로 정착시켜 생활적 결합을 높여내고 여성문제를 실천적으로 풀 수 있어야 하겠다. 이러한 다양한 소모임 건설지도를 단여에서 구체적으로 지도해내야 겠다.,

「방도」

1) 과단위 취업준비 소모임 건설

학업이나 취업준비에서 분야가 비슷하고 전공에 따른 것이라면 이를 소모임으로 엮어 다양한 정보공급과 지도가 진행되어야 한다.

2) 대중적 행사사업을 통한 여연, 탁아소모임 건설

탁아나 여연이 아직 건설되지 못한 과에서는 예비대학때 신입생과의 결합력을 최대한으로 높여내고 큰 기획사업을 통해 여기에 참가한 학우들을 소모임에 들게 하고 지속적으로 단대, 과여에서 고민을 발전시킨다. 특히 단여나 과여가 없는 단대에서는 총여가 기획사업을 통해 소모임을 건설하고 여연단위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여학건설의 토대를 마련한다.

3) 여연을 생활단위 소모임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중앙여연단위에서 단위내용에 기반한 내용으로 운영지침서를 발간하고 교사모임, 세로모임을 통해 지도한다. 여성문제를 실천으로 풀어내는 곳이 여학생회이므로 여연과 여학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지어야 한다.

4) 탁아소모임의 안착화

올해는 단위의 주체가 마련되었으므로 중앙과 일관된 맥으로 지도하고 단여는 개별적인 탁아활동에서 소모임으로 정착시켜 여성문제 인식을 기한다.

4. 일상사업의 강화

「문제점」 여학생회사업에서 가장 기억 남는 것으로 비상벨을 꼽는 여학우들이 많았다. 이는 여학생회의 중요성을 백번 말로 하는 것보다 일상사업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대목이라 하겠다. 하지만 단순한 복지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매개를 통해 여성문제 인식 확산을 통한 자주성 고양이라는 관점을 명확하 틀어쥐어야 하겠다.

「방안」
1) 중앙부서의 전문성확보로 여학우 삶에 정착한다.
올해는 총여의 인복이 학자로 발전되어 여성학교과과정, 여성전용 취업정보센타 등 한층 발전된 여학우의 요구를 실현하고자 하며 학술, 편집, 여연연구단위, 선전부 등 대중의식화 사업에 있어서도 체계가 전문화, 세분화하고자 한다.
학술은 대중교양사업을 중점적으로 고민하며 강연, 영화제의 정기화, 여성과 사회수업 공개, 성교육내용 보강과 전면화를 고민하고 여연은 여성학의 깊이있는 내용과 단대에 맞는 내용생산등을 고민한다. 편집부는 월별 신문발간과 총여 기관지 발간을 하고 선전부는 행사홍보 차원에서 기획선전의 강화로 여성문제 인식확산을 가져온다.
2) 여학우 의사개진운동
일상적인 여학우의 의식흐름과 요구, 총여사업을 학우들속에서 평가받기 위해서 설문조사 실시, 여휴를 통한 여론수렴, 사업 후 평가 사진전, 이동총여, 과순회 간담회등으로 진정 여학우 삶속에 여학생회가 놓여져야 한다.

5. 올바른 관점에 입각해 여성문제를 풀어갈 간부혁신을 이룬다.
「문제점」 부문운동이 자기 내용의 전문화를 가져오지 못하면 자연 소멸하며 전체 운동에 복무하지 못하면 분리와 대립을 가져온다. 올바른 관점에 입각한 자기 내용성 확보와 끊임없는 여학운에 대한 교양으로서 여학운에 대한 자긍심으로 여학우의 자주성을 고양시켜낼 간부의 혁신이 필요하다.
「방안」
1) 간부의 생활혁신
중앙의 간부정책 마련을 통한 여학간부의 올바른 상을 내어오고 조종례, 생활총화, 전원조례 등을 통한 간부의 생활력을 높여낸다.
2) 간부교양 내용의 생산으로 교양을 정기적으로 실시
일꾼학교의 적절한 시기별 개최와 총여, 단여 단위로 간부들에게 필요한 내용을 상시적으로 공급하며 세로모임 단위로도 실무와 여학생운동에 대한 교양을 실시한다.

6. 7천의 생활속에서 실천하는 여학생운동의 창출로 여학생운동의 대중화를 실현한다.
「문제점」 여성문제를 느끼는 7천 여학우 모두가 스스로 여학생운동을 실현하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방안」
1) 묵갈이 투쟁의 전복현허
2) 지역빈민 탁아활동을 더욱 대중적으로, 농활을 통한 여성농민과의 힘찬 연대, 지역 여성단체와 연대
3) 기지촌 활동의 토대 마련
4) 성폭력 추방 주한미군 철수를 위한 운동본부와 연대.

사무부 사업 계획서

1. 들어가며

사무부는 재정, 기획, 집행총화까지 단위의 사업을 총체적으로 이끌어가야 할 역할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사무일꾼의 부족과 효율적인 단위의 체계운영을 위해 94년 총여학생회의 사무부는 집행총화는 하지 않으며 생활총화를 담당하기로 한다.

2. 위상과 역할

사무부의 위상은 전체 집행의 맥을 파악하는 것을 바탕으로 혁신적 기획을 먼저 고민해야 하며 이러한 작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게 하는 재정사업을 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총여학생회 내부의 집행부원들간의 애정과 이해를 높일 수 있게 노력해야 하며 집행부원들의 생활에 있어 간부혁신을 이루어내는 것이다. 이에 따른 역할로는

각 시기별 사업에 맞는 기획안을 준비하고 전체 회의 속에서 조정하여 사업을 진행한다.

재정에 있어서 각 부서간의 효율적 분배를 하며 전체 부서간의 사업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집행부들의 생활혁신 방안을 모색하여 단순한 실무자가 아닌 여학생운동의 신심을 가진 활동가로 자리잡게 한다.

3. 사업의 원칙

①사람 중심의 사업을 한다.

②기획 사업은 기층의 요구와 이해에 맞게 받아 안아야 하며 객관적 상황과 구체적 조건에 맞게 기획한다.

③재정사업은 공개성과 민주성을 원칙으로 한다.

4. 사업내용

1)재정사업

사무부장부터 올바른 재정관을 가지고 원칙을 정해 그에 따라 이행한다.

사업계획에 근거한 재정의 확보와 재정위 실정에 맞는 집행을 수행하며 이를 위해 모든 부서는 사업계획서와 예산내역서를 미리 제출하게 한다.

2)생활총화

집행부들이 합의하는 생활규율을 세우고 이를 지킬 수 있게 하며 생활총화와 비판의 시간을 융통성있게 진행하도록 한다.

또한 기층의 내용을 받아 안기 위해 세로모임을 안착화시켜야 한다.

--기본사업

*3월; 전여대회, 대동학교

*5월; 대동제

*9월; 대동한마당

*11월; 선거

--전체 일정에 따른 사업

*4월; 4.9제

*5월; 5.18, 한총련 출범식

*7월; 농활

*8월; 범민족 대회

제 9 대 자주 총여
조직정책부 1차 사업 계획서

1. 위상과 역할

조직정책부는 정책을 생산해내고 여학생회 일꾼들을 교양해내고 더불어 각 시기 투쟁사안을 풀어나가는 부서이다. 여기서 올해 총여에서 가장 중요하게 제기되는 부분은 여학일꾼의 재생산이다. 해마다 여학생운동을 고민하고 여학생회단위에서 사업을 풀어나가던 사람들이 2년을 결의하는 모습은 찾아보기가 힘들다. 많은 이유가 존재하겠지만 확고한 원칙을 가지지 못하고 사업에 임하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사람이 이루고 사는 사회에서 발전을 내오는 동력은 역시 사람이다. 이에 여학생운동을 고민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의 문제이다. 또한 사업을 풀어나가는 데에 있어서 기계적으로 부분적으로 바라보는 한계를 극복하고 전체속에서 매 사업의 방향성을 내오는 것이 중요하다. 각 부서의 고민을 총집산하고 총노선과 정세속에서 사업의 중심기조를 내오는 것이 조직정책의 또하나의 역할이라 하겠다. 어느 부서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이다. 이에 이 모든것을 중심틀 속에서 올바르게 묶어내는 것 바로 조직정책부서입니다.

2. 사업의 원칙

① 머리만 굴려서 나오는 정책이 아니라 발로 뛰어 다니면서 만들어간다.
② 정책생산을 기계적으로 바라보지않는다.
③ 총노선과 현정세에 근거한 사업기조를 생산해 낸다.

3. 사업의 내용

원칙 사업 기조 마련

시기별 사업을 할때 중심없이 이끌려 가는 모습을 깨끗하게 버리고 싶습니다. 총노선과 각 시기 정세속에서 우리의 중심을 잡아봅니다. 꼭 매달 일주일 전에는 나올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간부의 집단 교양

여학생회 일꾼들에게 고민거리를 던져주고 함께 풀어나가는 자리를 만들어내고 언제나 목말라하는 내용을 올바르게 파악해서 교양해내고 함께 뒹굴면서 공동체 인식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속적인 단위 하방

단위 실정을 무시한 사업의 중심틀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지속적인 하방을 통해 단위 실정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고민과 해결방안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방방식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기지촌 활동

처음으로 제기되는 사안이고 또한 대구의 상황으로 인해 직접적인 기획은 올해 무리라는 생각이 됩니다. 대구지역 기지촌에 대한 조사사업과 기지촌여성들의 현실을 대자보를 통해 알려내고 또한 열심히 해나가고 있는 단위에서 모범을 배워나가고 지역 여성단체와의 교류를 고민해 봅니다.

시기별 투쟁사안 내용 마련

민족의 자주권을 지켜나가는 쌀투쟁을 비롯하여 매시기 투쟁사안에 있어서 올바르게 우리의 내용으로 풀어낼 수 있도록 합시다.

4. 나오며

올바르게 부서를 바라보지 못해서 많이 힘겨워하고 제자리를 찾지 못한 채 준비기를 보내지 않았나 합니다. 주체의 역량부족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올바르게 부서를 이해하고 있는 지 의구심을 느끼기는 하지만 차근차근 해나가는 자세로 열심히 한번 해 볼렵니다. 1년이 지나고 나서 한층 더 발전된 나의 모습을 우리의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제9대 자주총여의 핵심
위대한 학술부 사업계획

1. 학술부의 위상과 역할

학술부 위상과 역할의 전문성이 요구되면서 92년 새롭게 여연부로의 체계개편이 이루어졌다. 두해째 여연부의 체계로 있다가 이번에 다시 여연부와 함께 학술부가 제기된 것은 단지 여연부의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실지로 여연으로 묶이는 여학우가 전체의 몇%밖에 되지 않는 상황임을 볼 때 대다수 여학우 대중의 의식화를 담당할 부서의 필요성은 너무나 절실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업의 시작이 의식화에서 비롯된다 할 때 그 시작을 맡는 학술부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겠다.

일반적으로 학술사업은 무작위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과 조직화되어 있고 어느 정도 학술적 내용을 가지고 있는 학회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구분할수 있다. 하지만 위에서 보았다시피 총여 학술부는 여연으로 묶이지 않는 여학우,즉 무작위 대중을 대상으로 일관된 한 해의 기조에 맞는 교양사업을 다양한 형식으로 펼쳐내는 부서로서의 위상을 가진다.

2. 사업 원칙

* 무작위 학우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보니 대중 추수주의를 경계한다.그렇다고 일방적인 목적의식성만 강조되어서도 안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우의 의식 흐름을 꾸준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존의 교양사업의 대표적 영역인 강연회에만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형식을 개발한다.단여 학술부와 함께 할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그들을 주체로 세운다.
*같은 대중교양사업이라 할수 있는 선전,편집부와 함께 할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확실한 역할 분담을 내어온다.
*매 학술사업의 성과가 여연 강화에 복무하도록 한다.

3. 사업내용

1」기획사업

1)정기 강연회

올해는 월례 강연회가 제기되어 여학우들의 의식화를 담당하려 했으나 예전에도 대동학교,대동제,대동한마당때와 취업 특강 등 거의 두달에 한번꼴로 실시되어 왔었다.그리고 머리 숫자가 다는 아니지만 강연회에 모인 학우들의 숫자를 생각해보면 강연회가 대중교양 매체로 유력한지 되씹어보게 한다.그래서 그간에 있어왔던 강연회에 최대한 집중하고 또 다른 강연회를 하지는 않으려 한다.

2)자주강좌

처음에는 월례강연회를 성사시키고 그 성과를 모아 내년쯤 자주강좌를 실시하려 했으나 강연회가 줄어 들면서 다시 고민하게 되었다.

1학기에는 무리인 것 같고 1학기와 방학동안 출장과 자료 수집을 통해 준비를 하고 2학기쯤 실시할까 하고 있다.대동한마당,여성학 수업과 결합방도를 고민중이다.

3)영화제

강연회 외에 다른 매체 개발이 절실한 이때 가장 유력한 것으로 영화제를 들수 있다.

영화제는 한달에 한번,아니면 그 이상으로 자주 실시하고 단순히 영화를 트는

것이 아니라 영화를 통해 의식화를 담당할 수 있도록 치밀한 준비가 요구된다.

2, 일상사업

1)세로모임

각 단대마다 학술부가 생겨나고 있지만 그 역할을 제대로 못찾아 헤매고 있다. 단대 실정에 맞는 체계로 개편하고 총여 체계속에서의 역할 분담을 통해 안정적인 세로 모임이 되게 해야 할 것이다. 여성학 교양과 기획 사업에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2)집행부 교양

교양에 대한 중요성은 두말 할 나위가 없지만 우리 간부들에게 가장 안되고 있는 것이 교양이기도 하다. 주체의 결의 결사와 간부들의 협조로 올해는 꼭 교양을 성사시키자.

2주에 한번꼴로 할 예정이며 내용은 여성학 일반과 정세위주로 될 것이다.

3)도서안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여성학 책들을 종류별로 나누어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정기적으로 할 것이 요구되며 편집부와 연계하여 독후감을 신문에 실을 수도 있다.

4)여성학 개정

여성학 수업의 고질적인 문제점은 해마다 지적되어 왔지만 별로 달라진게 없다. 올해도 구조적인 개선은 불가능할 것 같고 그대신 내용 보완에 힘쓸 생각이다. 자주강좌에 여성학 수업을 포함시키고 공개화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선전부 사업 계획서

1. 들어가며

학생회 사업을 학우들과 공유하는데 선전 사업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플랭 하나 더 쓰고 자보 한장 더 쓰는것이 그 대안은 결코 아니구요.
전체 사업 기조를 꿰뚫으며 매시기 진행되는 사업 속에서 학우들을 주인 주체로 세우며 복현골 곳곳에서 그들을 주인으로 인식하는 간부의 모습을 대할때 조금은 어설픈 대자보라도 우리 학우들 마음 깊숙히 다가설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제9대 자주 총여 선전부는 기간 단절되었던 선전 부서에 대한 고민을 이어 받으며 복현 7천 여학우들의 자주적 의식 발전에 근거해 그들의 이해와 요구를 파악하고 올바른 의식화, 조직화의 무기가 되로록 빨빨(?)거릴 것을 다짐해 봅니다.

2. 위상과 역할

선전부는 결코 실무 집행자, 노가다는 아닙니다.
총여학생회 사업속에서 진행되었던 사업 내용을 학우들과 공유하면서 학우들의 의식 흐름을 분석하고 장악에 근거한 선전 정책을 생산하며 그들의 이해와 요구를 담아내어 진정 학우들 속에서 살아 숨쉬는 총여학생회로 만들어 내는 부서 입니다.

3. 사업 원칙

1)학우 중심의 선전 사업을 세우고 학우들을 의식화 사업의 주체로 세운다.
특히 여학 단위가 없는 단대의 학우들에 대한 고민의 집중이 필요하다.
2)계획성 있는 선전 사업을 진행하며 이를 위해 연구, 학습하는 기풍을 세운다.
이를 위해 유관 부서와의 결합력을 높여낸다.
3)세로 모임을 통해 여학생회 강화에 복무한다.

4. 사업 계획

1)행사 선전
월별로 짜여진 기획 사업에 집중하며 단순히 행사 홍보가 아닌 개별 사업에 담긴 내용을 학우들과 함께 하고자 한다.
2)정치 선전
흔히 여성 문제를 전체 사회 모순 속에서 특화(?)시켜 긴박히 돌아가는 정세를 놓치는 오류를 범하기도 한다. 총학에서 내려오는 선전물 하나 쓰는 것이 아니라 단위에서부터 정세 분석력을 높이고 7천 여학우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부분부터 여학우들의 의식화, 조직화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단, 총학과의 구분을 명확히 지어야 할 것이다.
3)기획 선전
안정적인 공간(여휴, 총여 게시판등)을 확보하고 월별 기조에 맞추어 여학생회의 목소리를 담아낸다. 특히 여학 단위가 없는 단대를 어떻게 포괄할 것 인가에 대한 고민이 지속되어야 한다.
4)설문지
학우들의 의식 흐름 파악에 가장 중요한 도구라는 생각을 한다.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학우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난다는 마음으로 구체적 실사에 근거한 내용을 잡는다. 각 기획 사업이 끝난 후가 될거라는 예감.....

5. 나오며

아직도 많은 고민의 부족을 느낍니다. 또 실무 능력의 부족도 실감하구요.
그러나 조국을 사랑하는 자랑스러운 딸이기에 주어진 일을 하나하나 성실히 수행해 가는 속에서 작은 보람을 느끼고 그 작은 보람을 더욱 큰 것으로 만들기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총여 집행부의 많은 격려와 비판을 바라며 서툰 글을 접습니다.....

여연 사업계획서

1. 들어가며

여학생운동에 잇어서 여연부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는 어느 다른 부서보다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것은 바로 '여연'들이 여학운을 이끌어나갈 재목이기 대문이다.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여연들을 과연 잘 관리해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
특히 시간이 흐를수록 여연들이 학회로서 성격을 가지고자 하는 모습을 볼때 과연 이것은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면서 과연 총여 여연부에서는 무엇을 해야하나 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다.
경대내에서도 '여연'의 양적팽창은 진행되고 잇지만 질적 발전을 함께 이루지 못해 나날이 퇴보해 나가는 느낌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할수 있는 방도는?
그리고 아직도 '여연'이나 '여학생회'가 없는 단대, 과에서의 여연건설, 지도할수 있는 방도는 무엇일까?

2. 여연부의 위상과 역할

여연부는 과, 단여의 여연을 중심으로 여성문제의 대중화를 이루어내고자 한다.
여성문제의 인식확산을 통해 7천여학우들이 자신들의 삶에서 당당하고 자주적인 삶을 살아나가도록 하고 또한 애국청년학생으로서의 삶을 책임지면서 살아나가도록 한다.
여연부는 여연사업에 대한 집중적인 고민과 여연연구단위의 관리, 여학우의 이식화, 조직화를 목적으로 한다.

3. 사업원칙

(1)모든 사업의 중심은 실적이나 좋은 평가가 아니라 사람사업임을 잊지 않는다.
(2)보여주기식 사업을 지양하고, 할수있는일, 해야할일을 한다.

4. 사업내용

(1)일상사업
-세로모임을 통한 여학일꾼의 조직화
-여연전체교사모임(운영지침서, 토론지침서, 교양)
-여연건설
-기층여연들의 지도, 강화

(2)행사사업
-여연교사 전진대회
-여연 학회지 발간
-여연 발표회(공동세미나)

제9대 총여학생회 편집부 1차 사업계획서

1. 편집부의 위상과 역할

편집부는 총여학생회 사업 속에서 생산되는 여성운동에 관한 제 정책을 인쇄화된 매체로 외화시킴으로써 총여가 지향하는 점들을 여학우들에게 정확하고 올바르게 전달하여 총여와 여학우들을 이어주는 단위이다.

특히, 올해는 여학생운동의 대중화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만큼 편집부의 활발한 활동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하겠다.

2. 사업 원칙

하나. 정세를 빠르고 바르게 판단하여 우리의 방향을 밝힌다.

두울. 총여학생회 사업의 의의와 성과들을 학우들에게 알려낸다.

세엣. 단대여학생회가 없는 단대에 집중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총여를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한다.

네엣. 편집부의 독창적인 내용으로 신문의 질을 높인다.

다섯. 총여학생회의 각부서가 편집부를 통한 인쇄매체를 적극 활용할 수 있게한다.

3. 사업 내용

1) 경대여성 * 약평 4대 총여 (89년) - 4, 6, 1월 = 3번
5대 총여 (90년) - 3, 5, 9, 12월 = 4번
6대 총여 (91년) - 5, 7, 8, 10월 = 4번
7대 총여 (92년) - 월 = 1번

* 발간계획

15호 발간일 - 2월 1일
주내용 - 간부인사, 쌀투쟁, 윤금이씨 판결에 대해

16호 발간일 - 3월 10일
주내용 - 전여대회, 사업계획, 대동학교홍보

17호 발간일 - 4월 중순
주내용 - 대동학교 평가, 출범식, 진대 발대식

18호 발간일 - 5월 중순
주내용 - 물갈이투쟁, 설문조사

19호 발간일 - 6월 중순
주내용 - 농활, 상반기 사업평가

20호 발간일 - 10월 중순
주내용 - 마무리

2) 회지

경북대학교 여학생운동을 정리하고 그 성과와 한계들을 짚어보고 앞으로의 전망을 내어온다. 영구적으로 남길만한 자료가 되도록 내용을 충실히 한다. 발간은 9월초 예정.

4. 예산

신문 1회 발간시 - 8면, 6000부 ⇒ 50만원 : 년 6회 발간 총 250만원
8면, 4000부 ⇒ 40만원

회지 1회 발간 - ? $$$ 총예산 300만원

탁아부 1차 일년 사업계획서

1. 들어가며

여성과 육아는 떨어질 수없다는 사회적 통념속에서 육아는 개별적인 것, 가정적인 문제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개별 가정의 불화가 사회로 연결되듯 청소년 범죄의 대다수가 가정적 불화로 인한 것이고 결손 가정의 자녀, 빈민가정의 아동들이 위험한 환경속에 방치되고 기혼 직장 여성들을 대상으로 상업적 탁아(1달에 20- 40만원 정도)가 난무하는 요즈음 육아의 사회화가 요구되며 이에 여성들이 앞장서야 하고 실제로 많은 여성단체들이 탁아사업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탁아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 시대적 요구이며 우리의 과제입니다. 즉 탁아는 여성의 사회참여를 높이고, 3중고(육아, 가사, 생계)에 시달리는 모성을 보호하고, 올바른 인성교육으로 인한 건전한 사회건설을 위해 우리사회가 해결해야할 과제입니다. 또 이를 빨리 앞당기기 위해 여성들이 앞장서야 하고 여학생회는 그 배움과 실천의 장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2. 위상과 역할

자생적 탁아 소모임들은 여학생회 사업의 대중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기층 탁아인식의 저변확대와 자생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중앙부서로서의 안착화가 되지 못해 지속적 관리와 내용생산의 부재로 연계성을 갖지 못했다. 이제 총여로부터 단대에 탁아주체가 마련되어 개별적이고 산발적인 탁아자봉과 후원회를 소모임으로 안착화시켜 과여학생회로 모아내어 과의 주인으로 세우는 기초가 되고 과여학생회가 없는 취약단대에서는 여학생회 기초를 마련하는 여학생 소모임으로 안착화시킨다.

소모임의 지속적인 관리와 내용생산으로 단순한 몸대주기의 한계를 극복하고 탁아문제로 부터 여성문제로의 인식확산을 꾀하고 이러한 여성문제의 인식을 바탕으로 여학생회가 실천력을 담보해냄으로써 여학생운동으로의 발전을 가져온다.

단대의 각 탁아주체를 중심으로 단대별 특성에 맞는 사업(기금마련사업 -- 사회대 아나바다)을 내옴으로써 탁아소모임의 활성화는 물론 과여 단여의 자활력을 높이고 탁아인식의 확산과 학우대중사업의 매개고리 역할을 함으로써 기층조직의 강화로 여학생운동의 대중화를 실현한다.

3. 사업원칙

1) 여학생운동의 연대사업의 하나로써 총여학생회의 강화에 기여한다.
2) 여학생운동의 대중화, 조직화에 기여한다.
3) 사회변혁운동의 한 부분인 여성운동에 복무하는 탁아부로써 사회변혁운동에 기여한다.
4) 빈민아동과의 실제적인 결합속에서 빈민대중들을 만나 탁아사업을 실천한다.

4. 사업내용

행사사업
3월 : 1차 자원봉사자 모집 및 후원회 모집
단대별 탁아 소모임 주체 마련 및 탁아부 설명 간담회 실시

단대주체들 대탁과 탁아소 방문 실시
대동학교를 통한 탁아사업 설명과 자원봉사자 및 후원회 모집
4월 : 2차 자원봉사자 모집 및 후원회 모집
자원봉사자 소모임 건설 및 안착화
1차 소식지 발간
5월 : 봄농활(언제?) 아동반 주체 지도(지침서...)
총여 주체 기금마련 사업 및 각 단대별 기금마련 사업 시작
(대동제 -- 바자회, 주점...)
대탁연합 어린이날 행사
6월 : 전체 경대 자원봉사자 모임
농활 아동반 선전 및 주체들 교양(자료집 발간)
2차 소식지 발간
7월 : 농활실시(상황 파악 및 지원)
상반기 사업 평가
8월 : 대탁연합 유아자봉 캠프
9월 : 3차 자원봉사자 및 후원회 모집
3차 소식지 발간
10월 : 대탁연합 체육대회

일상사업
* 단대 상황 공유, 월별 사업 계획을 마련하여 단대 지도 강화(하방의 강화)
* 주체들을 통한 후원회의 관리
* 세로모임을 통한 단대주체의 교양
* 자원봉사자 소모임 안착화 및 교양을 통한 사람관리(정기적인 참여)
* 공청회나 자보를 통한 탁아 인식의 확산
* 시기별 소식지 출간(한 학기에 2번 정도, 4,6,9,* 월)

5. 나오며

전체 여학생운동을 장기적인 전망으로 바라보고 사업을 전개하여 탁아사업을 성공적으로 전개하는 것뿐 아니라 더 나아가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여 육아 또한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책임임을 분명히 해야한다. 그리하여 국가에서 탁아를 책임지도록 요구해야 한다. 일년의 사업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전개를 통해 이를 담보해 내는 과정이 되어야한다.

총여학생회가 힘쓰는 사업들
--올해 총여 3대 기조

올 총여에서는 생활에서의 자주화 실현인 물걸이 투쟁과 생활에서의 반미실천인 기지촌 투쟁과 나의 삶을 책임질 취업에 대해서 미친듯이 준비하면서 7천과 공유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하나하나에 대해서 한 번 알아봅시다.

첫째, 물걸이 투쟁의 전 복현화를 이루어 냅시다.

북문 앞 '아우토반'사건으로 시끌거렸던 작년이었습니다.
이 술집에서 여성에게는 남자 나체잔을 남성에게는 여자 나체잔을 주었다하여 복현골에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학우들의 의견은 '상술이며, 성폭력이다' '재미있다, 흥미있다.'라는 식의 반응들이었습니다.
윤금이씨 사건을 접하면서 학내에서 일어난 성폭력 사건의 소문을 들으면서"아! 성폭력이란 게 정말 심각하구나." 라고 말하지만 우리들은 우리 일상에 만연해 있는 성폭력 문화에 대해서는 너무나 익숙하고 때론 관대하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문화들이 끊임없이 성을 상품화 시키고 성폭력을 유발하고 있음에도 말입니다.
동문회나 페스티발에서의 야한 게임들, 2차로 가게되는 동대구역 여관의 포르노 비디오, 과 방에까지 굴러다니는 음란 만화들.
이 모두가 우리의 건강한 삶을 좀 먹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학내외의 모든 성폭력 문화의 추방을 위한 전면전을 선포하겠습니다.
학교밖 업소들에 대한 조사작업에서부터 야한 사진 바꿔주기, 퇴폐업소에 대한 불매운동, 학내 건강한 문화 만들어내기까지 학우들의 생활 곳곳을 진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총여학생회, 단대 여학생회가 함께 복현의 건강하고 바른 성문화 정착을 위해서 일상적인 성교육 세미나를 열고 과내 생활에서부터 성폭력문화 추방의 결의를 다져오도록 할 것입니다.
이제 칠천여학우와 이만 복현학우와 함께 우리 생활에서의 모습을 반성하고 건강한 삶을 일구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물걸이 운동의 전 복현화로 이루어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이만의 반미실천 한반도 성폭력의 주범 주한미군의 본질을 알아내고 진정한 자주통일의 그날을 준비하면서 기지촌활동을 시작합니다.

작년 윤금이씨 사건을 보면서 한반도 성폭력의 근원이 주한미군임을 알았고 이의 피해자는 기지촌 여성에서부터 우리 민족 전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도 시중에 나돌아 다니는 음란 컴퓨터 프로그램, 음란 서적, 포르노 비디오의 대부분이 주한미군 기지로부터 흘러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미군기지는 우리 사회에 향락문화를 확

산시키는 근거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도 주한 미군 범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김국혜씨 사건에서처럼 보여지듯이 기지촌 여성뿐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여성들까지도 겨냥하고 있다는 현실을 알 수 있습니다.
기지촌 활동은 이미 경기지역 여대협이나 서울지역 여대협을 중심으로 기지촌 지역의 사회단체들과 함께 진행되어왔습니다. 기지촌 활동의 구체적인 내용은 혼혈아를 대상으로 하는 놀이방, 공부방활동, 클럽방문, 기지방문, 지역조사등이 있습니다.
현재 대구지역 미군부대 주변에 기지촌이라고 형성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구 또한 어떤 지역 못지않게 미군 부대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넓고 그 피해가 크므로 기지 주변의 기지촌에 대한 조사 작업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서울이나 경기지역의 축적된 경험을 따라 배울 수 있도록 그 지역과의 연계 활동을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 이러한 시도는 학우들과 실질적인 반미를 체험하고, 평화정착을 위한 주한미군 철수투쟁으로 나아가며 미군 기지주변에 상설적인 '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체' 기반을 내어오는 과정일 것입니다.

세째, 당당한 나의 모습을 내어놓 수 있는 취업, 함께 준비해 갑시다.

요즘 복현골 여학우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수업하랴, 취업공부하랴 무척이나 열심히 이리 뛰고 저리 뛰는 모습들입니다. 특히 취업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 일종의 장애물 경기를 보는 듯 합니다. 입학의 기쁨도 잠시, 또다른 관문인 취업을 위해 컴퓨터, 영어, 각종 자격증, 재교육, 취업원서, 면접, 취직, 취직후의 차별.... 힘들게 넘어서면 또하나의 장애물이 우리들을 기다리고 또 다른 차별이 우리들을 막아섭니다. 차라리 달리기라면 끝도 보이고 나 혼자 넘어설 수 있기 때문에 쉬운데 취업은 현실이기 때문에 더욱 힘들고 혼자만 잘나면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에 더욱 힘들고 지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총여에서는 원론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취업 현실을 바로 집어 나갈 것이며, 단여에서는 단대 실정에 근거한 취업 강좌를 준비하고, 과에서 가장 자기 과의 현실에 근거한 졸업한 과 선배등과의 간담회등을 준비하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내올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 모든것이 하나의 흐름속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총여 핵심 사업의 하나로 취업을 특화시켜내면서 모든 여학생회에서 준비해 들어갈 것입니다. 또한 여성취업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여대생들의 취업을 실질적으로 고민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 모든것과 더불어 언제나 잊지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올 모성보호 관계법 개정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 땅의 취업현실은 언제나 여성노동력의 착취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혼자만의 노력이 아니라 모두 함께 싸워 나갈때만이 취업평등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돌 것입니다. 또한 취업은 혼자만의 고민으로는 절대 풀어나가지 못하고 함께 풀어나갈때만이 올바르게 풀어나갈 것임을 잊지 맙시다.

국민은 국민투표
국회는 비준거부
정부는 재협상
수입개방 저지하자!!

우리가 농산물 시장을 양보 해야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이도 있다. 그렇게 생각 한다면 여기를 보라.

만약 쌀시장이 개방되면?

① 농가소득 43.8%나 되는 쌀의 포기는 농업과 농가피해를 가져 온다.
② 쌀 농사의 포기로 인해 전쟁이나 대흉작이 일어날 때 식량공급이 위협 당하게 된다.
③ 도시로 인구가 집중되면서 농촌 지원비의 3배의 비용이 도시생활에 투여된다.
④ 말할 것도 없이 도시 실업률이 증가한다.
⑤ 환경 및 생태계가 파괴된다. - 홍수, 산소 부족, 지하수 고갈, 탄산가스 증가.
⑥ 농약과 독극물의 복합체인 미국쌀을 먹으면 국민의 건강은 보장할 수 없다.

그러나 끝난 일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 한다면 여기를 보라.UR협상은 이제부터 시작인 것이다.

협상참여국들은 자국의 국회비준 절차를 거쳐야 하고 4월 12일 모로코 각료회의에서 최종조인해야 하며 그 효력은 95년 7월에야 발생한다.

이미 우리나라도 전농을 중심으로 한 범국민 대책위에서 국회의원들에게 비준거부를 요구하며 이미 서약서를 받아놓은 상태이며 미국과 일본도 협상에 불만을 품고 수정안을 내놓고 있다

즉 수입저지는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다.

우리의 요구

① 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우리의 목숨을 버리는 행위를 막기 위해 국민투표로 우리의 의사를 관철 시켜야 합니다.
②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에게 당당히 비준을 거부할 것을 요구하고 그들은 당연히 비준을 거부해야 합니다.
③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재협상을 해야 합니다.

농촌이 망하면 도시가 망하고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실망하지 말고 단념하지 말고 끝까지 열심히 수입저지에 우리 7천 여학우가 앞장 섭시다.

경북대학교 총여학생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 1조 (명칭) 본회는 경북대학교 총여학생회라 칭한다.
제 2조 (목적) 총여학생회는 학내 여학우들의 의견을 결집하고 그 이익을 실현하는 유일한 대표기구이다. 학내에 존재하는 반봉건적이고 비민주적인 요소를 타파하고 여학생들의 지위와 역할을 높여나가는 여학생 자치활동기구이다. 나아가 사회에 있어 여성에 대한 제반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 구조적 모순의 인식과 현실 극복에 대한 실천력을 보장함으로써 사회 발전을 책임질 한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회원의 자격)
본 회의 회원은 본 대학에 재학중인 여학생으로 한다. 단, 휴학상태에 있는 자는 그 기간중 회원의 자격이 중지된다.
제 4조 (회원의 권리)
1)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칙에서 정하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본 회의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본 회에 대한 의사개진권과 의사결정권을 가진다.
2) 본 회의 회원은 본회의 제반 활동과 관련된 사항을 알 권리와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 어떠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3) 본 회의 회원은 본회 기구에 대하여 100인 이상 서명한 서면으로 청원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심사, 수리, 결과를 통고받을 권리를 가진다.
4) 본 회 회원의 기타권리는 총여학생회칙의 관련조항을 따른다.
제5조 (회원의 임무)
1) 본 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해야 하며 본회를 수호할 의무를 지닌다.
제6조 (기구)
본 회의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고 학생자치 활동을 올바르고 민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여학생총회, 총(부)여학생회장, 운영위원회, 집행부, 단대 여학생회로 구성한다.

제 2장 여학생 총회

제7조 (구성) 여학생 총회는 본회의 모든 회원으로 구성되며 그 의장은 총여학생회장으로 한다.
제 8조 (권한)
1) 여학생 총회는 여학생회칙의 전면개폐 및 여학생 단체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 있을때 이를 논의, 결정한다.

2) 여학생총회는 총(부)여학생회장에 대한 탄핵소추권과 탄핵권을 가진다.

제9조 (소집) 여학생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둔다.

1) 정기총회는 매년 회기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총여학생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총(부)여학생회장,운영위원회 및 전교여학생대표자 회의 또는 100인이상의 요구가 있을때 총여학생회장이 소집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총여학생회장이 소집한다.

3) 여학생총회의 소집은 4일전에 공고한다. 단 2항의 경우에는 예외이다.

제10조 (의결및 탄핵정족수)

1) 여학생총회의 의결은 전체 회원의 1/15이상의 참석과 참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2) 총(부)여학생회장에 대한 탄핵결정은 전체회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 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3장 전교여학생 대표자 회의

제11조 (지위) 전교여학생대표자 회의(이하 전여대회)는 여학생총회가 열리지 못할 경우 최고 결정권을 위임받아 활동한다.

제12조 (구성) 전여대회는 각과 여학생회장,각 단과대학 여학생회장,총여학생회장,부회장,여연협의회장으로구성한다.

개정안---전여대회는 각 과 여학생회장, 여부학생회장, 여학생부 부장, 각 단대 여학생회장,위원장, 총여학생회장,총부여학생회장으로 한다. 단 과에 주체가 없을때는 여연장까지 포함한다.

제13조 (의장)

1) 의장은 전여대회의 운영전반을 관장하며 대외적으로 전여대회를 대표한다.

2) 임기는 당해 3월에서 다음해 2월까지로 한다.

3) 의장은 총여학생회장이 겸임한다.

제14조 (소집) 전여대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둔다.

1) 정기총회는 매 학기초와 말에 의장이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재적의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운영위원 과반수의 발이 및 총여학생회장의 소집요구가 있을때 의장이 소집한다. 단 긴급을 요할때는 의장이 소집할 수 있다.

제15조 (업무)

1. 전여대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행한다.
   1) 본회의 활동의 기본방향에 대한 사항결정
   2) 회칙 및 시행세칙 개정에 관한 사항
   3) 운영위원회에서 제출된 예산 심의 및 승인
   4) 본회의 회계 및 기타 사업전반에 관한 감사
   5) 총여학생회의 부서장 인준

개정안--- 3) 운영위원회에서 제출된 예산안 통과
4) 삭제

제 22조 (선출)
총(부)여학생회장은 4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 자로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선거관리 위원회의 시행세칙에 준한다.
제23조 (신분보장)
총(부)여학생회장은 탄핵에 의하지 않고는 어떠한 이유로든 그 직에서 해임되지 않는다.

제 5장 운영위원회

제 24조 (지위) 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최고 운영기구이다.
제 25조 (구성)
운영위원회는 총여학생회장,총부여학생회장,단대여학생회장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총여학생회장으로 한다.

개정안-- 운영위원회는 총여학생회장,총부여학생회장,단대여학생회장,단대여학생위원장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총여학생회장으로 한다.

제26조 (업무 및 권한)
1) 본회 전반에 걸친 사업계획을 검토,심의,조정한다.
2) 본회의 전체 예산 및 결산을 검토,심의,조정하여 편성하고 전학대회에 제출하고 업무 및 재정결산 보고를 행한다.
3) 회칙개정에 대한 발의권을 갖는다.
4) 여학생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5) 기타 운영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안-- 2)본회의 전체 예산 및 결산을 검토,심의,조정하여 편성하고 전여대회에 제출하고 업무 및 결산 보고를 행한다.
6)전여대회 소집이 어려울시 회칙개정 등 중요한 사항 의결

제 27조 (소집) 운영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가 있다.
1) 정기 회의는 매주 1회로 하며 그 시기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2) 임시회의는 위원장의 요구나 운영위원회의 1/3이상의 요구가 있을때에 연다.
제 28조 (의결)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제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2/3의 찬성으로 한다.

제6장 집행부

제29조 (지위) 집행부는 본회의 최고 집행기구이다.
제30조 (구성)
1) 집행부는 총여학생회장 및 총여부학생회장과 총여학생회장이 임명한 각 부 부장으로 구성되며 각 부는 필요에 따라 차장을 둘 수 있다.
2) 각 부의 부장은 전학대회의 인준을 받는다.

개정안--- 각 부의 부장은 전여대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31조 (체계 및 업무)
1) 총무부-회계와 각종 회의에 대한 사무전반을 담당한다.

2) 기획부-운영 및 행사에 대한 기획을 담당한다.
3) 학술부-학술 활동을 통한 회원교양 사업
4) 생활문화부-대학내의 향락 문화 척결과 건강한 문화 보급
5) 여성사회부-정부의 여성관련 정책 연구
6) 홍보부-본회 사업의 공개, 보고 및 선전사업을 수행한다.
7) 편집부-신문 발간 및 제반 출판 사업을 담당한다.

개정안--- 8) 조직1부-과여학생회에 대한 사업지도와 내용 공급
9) 조직 2부-과 여부회장에 대한 사업 지도와 내용 공급
9) 정책부-총여학생회 사업 전반의 방향 제시와 정책 수립
10) 탁아부-비영리 민간탁아소 지원 활동
11) 학자부-여학생들의 권익 향상과 교과과정 개편
12) 여연부-여연연구 단위를 통한 과여연에 커리 공급과 내용 지도

(부장의 권한 및 업무) 집행부의 각 부장은 전학대회,운영위원회에 참가하여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과 아울러 양 기구의 요청이 있을시 보고할 의무를 가진다.

개정안--- 집행부의 각 부장은 전여대회,운영위원회에 참가하여 구두,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과 아울러 양기구의 요청이 있을시 보고할 의무를 가진다.

제7장 단대 여학생회

제32조 (지위)
1) 각 단대 여학생회는 단대 전 여학생의 대표기구이다.
2) 각 단대 여학생회는 총여학생회의 산하기구이다.
제33조 (구성) 단대 여학생회는 단과 대학의 여학생 전체로 구성된다.
제34조 (회장)
1) 단대 여학생회장은 단대 여학생회를 대표하며 총여학생회의 운영위원이 된다.
2) 단대 여학생회장은 본 회칙 제 14조에 준하여 단대 여학생 전원이 선출한다.
3) 단대 여학생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 35조 (회칙)
단대 여학생회는 총여학생회의 회칙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독자적인 회칙을 만들어 이에 따라 조직하고 활동한다.
제36조 (업무 및 권한)
단대 여학생회는 단대 여학생 회칙에 의해 해당 단대 여학생회의 모든 활동을 독자적으로 수행한다.

제 8장 재 정

제 37조 (재원) 총여학생회의 예산은 학생회비와 보조비로 충당한다.
제 38조 (관리)

재정관리는 총무가 담당하되 인출 및 집행은 총여학생회장의 결재에 따른다.

제39조 (회계년도)

전 항의 회계년도는 2기로 나누어 각기마다 예산과 결산을 편성한다.

제40조 (예산 편성과 집행 및 결산 보고)

1) 재정관리는 총무가 담당하며 인출과 집행은 총여학생회장의 결재에 따른다.
2) 각 단대 각 부서에서 편성한 예산안을 운영위원회에서 검토,조정하여 전학대회에서 심의 확정한다.
3) 예산을 집행할 시는 일체의 경비에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각 기구에는 회계장부를 배치하여 경비 일체를 이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안-- 2) 각 단대 각 부서에서 편성한 예산안을 운영위원회에서 검토,조정하여 전여대회에 제출,보고한다.

제9장 선 거

제 41조 본회의 선거는 총학생회 회칙에 따른다.

제10장 회칙개정

제42조 (발의)

1) 본회의 회원 200인 이상의 발의
2) 전여대회 대의원 1/2의 발의
3) 운영위 2/3의 발의

개정안-- 4) 위원장의 발의

제 43조 (공고) 개정발의안을 전여대회 의장이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7일간 공고하여야 한다.

제44조 (의결) 발의된 회칙개정안은 공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여대회에서 2/3 이상의 출석과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안-- 발의된 회칙개정안은 공고일로부터 10일이내에 전여대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45조 (공포) 전여대회에서 확정된 개정발의안은 총여학생회장이 학내 제반 언론매체를 통해 3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효력의 발생) 본 회칙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관례및 시행세칙의 준용) 기타 이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및 기타 시행세칙에 따른다.

~~~의사 진행 세칙~~~

1. 정족수

선거 미실시로 인한 현지 대의원 부재등 사고로 인한 불참은 정족수에서 제외한다.
~~~

2. 각 안건에 대한 일반적 토의 순서

1)안건 상정
2)원안에 대한 제안 설명
3)질의 및 답변
4)원안에 대한 찬반토론
5)토론종결
6)원안에 대한 표결

3. 의사 진행과 관련된 규칙

1)발언자는 의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 발언한다.
2)발언자는 소속 성명을 밝힌 후 발언의 요지를 밝히고 다음에 부연 설명을 한다.
3)각 안건에 대한 대표 찬반토론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의사진행요원에게 신청하고 신청이 없는 경우 발언 신청자 중 찬반 1인씩을 의장이 지명한다.
4)발언 시각은 각각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각 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대표토론---20분 이내
질의 답변 및 보충토론---5분 이내
의사 진행 발언 및 기타---3분 이내
5)동일한 안건에 대한 동일인의 발언 기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로 제한한다.
6)의사 진행과 관련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정회를 선포하고 중앙위원들로 구성되는 의사조정회의를 열어 처리한다.
7)발언자의 수는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질의 답변---3인 이내
찬반토론---5인이내
단, 의장의 제안으로 참석자 1/2이상의 찬성에 의해 발언자 수를 늘릴 수 있다.

이렇게 많은 이들 모두가 나의 동지랍니다.

사 회 대

이름 정 순화
과, 직책 사회 복지학과 여학생회장
여학생회(부)일을 하게 된 동기
여성문제는 우리의 삶 자체이다.
이런 삶을 과 학우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다.
주소, 전화번호:수성구 노변동
284번지 82-0139

이름 이지영
과, 직책 여학생회 생활문화부장
여학생회(부)일을 하게 된 동기
주소, 전화번호 경북 영주시 영주
4동 441-28 0572-31-0960

이름 박 은주
과, 직책 사복 여연짱
별명 얄프
여학생회(부) 일을 하게 된 동기
선배님의 권유로
주소, 전화번호 포항시 대신동
해동apt2동 105호

이름 박 은희
과, 직책 지리 선전
별명 복길이
여학생회(부)일을 하게 된 동기
관심에 따라
주소 전화번호 서구 평리4동
신평리 apt 19동 507호 563-6360

이름 김현정
과, 직책 사회복지.탁아부장
여학생회(부)일을 하게 된 동기
선배의 권유로
주소, 전화번호 남구 대명 9동
184-15 66-3000

이름 신 미숙
과 직책 사회복지 생활 문화부장
여학생회(부)일을 하게 된 동기
여학생회장 언니의 권유로
주소 전화번호 북구 대현 3동
502-17 953-1542

이름 정유선
과 직책 사복 선전부
여학생회(부)일을 하게 된 동기
선배 언니의 권유
주소 전화번호 수성구 만촌 2동
1030-12 743-8678

이름 이 아미
과 직책 사회대 기획부
여학생회(부)일을 하게 된 동기
주소 전화번호 중구 삼덕 2가
128-10 424-4775

이름 한 태희
과 직책 사회대 여짱
별명 신나!
여학생회(부)일을 하게 된 동기
인간 해방의 그날을 위해
주소 전화번호 서구 중리동 1095-9
566-1136

이름 최 미라
과 직책 사회대 생활문화부
별명 미로
여학생회(부)일을 하게 된 동기
여학생 운동의 자긍심을 갖고
주소 전화번호 동구 신암2동486-13
952-8711

이름 황 순옥
과 직책 신방 여연짱
여학생회(부)일을 하게 된 동기
주소 전화번호 수성구 매호 82-6530

이름 김 귀자
과 직책 지리 여학생회장
주소 전화번호

이름 박 경
과 직책 사회 여연짱
주소 전화번호 수성구 황금동
황금아파트 219-106761-1875

이름 이 성민
과 직책 문헌정보 여연짱
주소 전화번호 서구 비산 7동
1890-4 354-2097

이름 장현주
과 직책 심리 여연짱
주소 전화번호 경대 기숙사 C동 204

농 대

이름 이 미라
과 직책 임산공 여학생회장
별명 이 미자(우리과 박 상지 교수님
의 고의 아닌 실수로 불리어진
후 나의 노래 실력과 더불어.)
여학생회(부)일을 하게 된 동기
주소 전화번호 동구 신천 4동
456-302호 743-3503

이름 임 경자
과 직책 식품공 여학생회장
여학생회(부)일을 하게 된 동기
좀더 열심히 생활해 가기 위해
주소 전화번호 서구 평리 4동 1229-6
554-8761

이름 박 현희
과 직책 농학과 여학생회장
별명 못난이
여학생회(부)일을 하게 된 동기
단지 팔뚝이 굵다는 이유로 얼떨결에
주소 전화번호 경북 경산군 하양읍
금락 2리 11-4 0541-51-3134

이름 정미영
과 직책 농경제 여학생회장
주소 전화번호 동구 신암2동
1196-29 958-4624

이름 김 수정
과 직책 임학과 여학생회장
별명 욕먹는 하마
여학생회(부)일을 하게 된 동기
총회때 선출되어 타의에 의해 시작
주소 전화번호 증구 봉산동
124 423-2922

이름 권 수현
과 직책 원예학과 부학생회장
주소 전화번호 941-7509

이름 이 진숙
과 직책 농공 여학생회장
주소 전화번호 783-6995

이름 최 이향
과 직책 농대 여학생회장
주소 전화번호 포항시 죽도2동
210-3 0562-72-3440

이름 홍 미숙
과 직책 농대 총기부장
주소 전화번호 수성구 지산동
에덴타운 102-1502 782-3969

이름 하 희주
과 직책 농대 학술부장
주소 전화번호 수성구 수성2가
212-6 764-3444

이름 조 남혁
과 직책 농대 탁아부장
주소 전화번호 동구 신암 3동
184-20 942-9082

이름 정 지혜
과 직책 농생물 여학생회장
주소 전화번호 수성구 수성1가
89-29 742-6428

인 문 대

이름 강 정아
과 직책 일문 여학생 회장
별명 내숭,강정
여학생회(부)일을 하게 된 동기
과 여학생회를 통해 후배를 만나고
여학우의 문제를 풀고 싶었다.
주소 전화번호

이름 정해순
과 직책 중문 여학생회장
별명 골동품
여학생회(부)일을 하게 된 동기
다른 학우가 스스로 서는데
도움을 주고파,또한 나 자신이
스스로 서기 위해
주소 전화번호 대구 북구 칠성 1가
184-21 422-8519

이름 조 진미
과 직책 독문 여학생회장
별명 gizmo
여학생회(부)일을 하게 된 동기
과를 위해서
주소 전화번호 중구 남선 3동 109-4

이름 정은주
과 직책 영문 여학생회장
별명 정주
여학생회(부)일을 하게 된 동기
여연이나 다른 여학과의 계속적인
연계가 없이 생활하였다.
과에서 여학생회장을 선출하는데
아주 고생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위
의 권유로 한번 여성문제를 과 학
우와 함께 풀어보기로 결심했다.
주소 전화번호 북구 관음동 한라
주택 105-102 312-3180

이름 성계순
과 직책 노문과 여학생회장
별명 성가신
여학생회(부)일을 하게 된 동기
가장 중요한 공간인 과에서 과를 사랑
하는 마음과 과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여학생회에 담아내고 싶어서
주소 전화번호 달서구 상인동 비둘기 아파트
202-610 634-5024

이름 백현주
과 직책 노문 여연짱
주소 전화번호

이름 최 영미
과 직책 철학과 탁아부장
주소 전화번호

이름 이 은정
과 직책 철학과 교육선전부장
주소 전화번호

이름 권 수미
과 직책 인문대 편집
주소 전화번호

이름 김 강호
과 직책 인문 여연부장
주소 전화번호

이름 이혜영
과 직책 독문 총기부
주소 전화번호

이름 박 은희
과 직책 인문대 여학생회장
주소 전화번호 수성구 범어1동
우방 3차2동 408 756-3005

이름 마 년경
과 직책 인문대 학술부장
주소 전화번호 수성구 상동
610-28 764-3130

이름 김 미진
과 직책 인문대 탁아부장
주소 전화번호 경남 양산군 일광면 원당리
79-2 0523-377-1182

이름 김기옥
과 직책 고인과 여연부장
주소 전화번호 경남 울산시 남구 신정 3동
167-5 0522-72-6634

이름 박수연
과 직책 일문 여연
주소 전화번호

이름 최영은
과 직책 사학과 여학생회장
주소 전화번호 남구 대명 1동
동아 대덕 아파트 40 653-4036

이름 장미정
과 직책 철학과 여학생회장
주소 전화번호 경북 경산군
와촌면 계당리 400 (0541)52-0874

이름 장은주
과 직책 불문과 여학생회장
주소 전화번호 경산시 대정동
22-3 811-1278

이름 이상숙
과 직책 한문과 여학생회장
주소 전화번호 동구 신암 4동
보성2차 아파트 107-402호

이름 박 정화
과 직책 국문과 여학생회장
주소 전화번호 중구 남산 4동
2632-21 253-0561

공 과 대

이름 서 수철
과 직책 염색공학 여부회장
주소 전화번호 941-6009

이름 이 주은
과 직책 건축공 여부회장
주소 전화번호 425-3133

이름 김 민주
과 직책 컴퓨터공 여학생회장
주소 전화번호 424-2456

수의대

이름 강 현숙
과 직책 수의대 여학생회장
주소 전화번호 755-5059

이름 양경임
과 직책 수의대 여부학생회장
주소 전화번호

이름 조진경
과 직책 수의대 총무부장
주소 전화번호

이름 박정연
과 직책 수의대 기획부장
주소 전화번호

이름 송 지은
과 직책 수의대 선전부장
주소 전화번호

의 대

이름 소미진
과 직책 의대 여학생회장
주소 전화번호 766-2034

사 범 대

이름 이인숙
과 직책 사범대 여학생회장
주소 전화번호 북구 대현 1동 104-35

이름 권 영혜
과 직책 사범대 탁아 인복부장
주소 전화번호 동구 신천 3동 64-3
756-2943

이름 정 범준
과 직책 교육학과 부회장
주소 전화번호 달서구 월배 3동
248-15 632-1036

이름 진현주
과 직책 국어교육 부회장
주소 전화번호 중구 대한동 26-1
255-0366

이름 권소현
과 직책 영어교육 부회장
주소 전화번호 수성구 황금동
신천지 타운 203-802 762-1537

이름 김현주
과 직책 독어교육 부회장
주소 전화번호 수성구 두산동 108
761-7049

이름 김소정
과 직책 불어교육 부회장
주소 전화번호 달서구 성당 2동
491-5 627-7839

이름 우은정
과 직책 역사교육 부회장
주소 전화번호 941-6529

이름 이명숙
과 직책 지리교육 부회장
주소 전화번호 북구 대현 1동 22-14
955-7362

이름 권인교
과 직책 일반사회 교육부회장
주소 전화번호 북구 산격 3동
1307-58 955-8188

이름 김지현
과 직책 상업교육 부회장
주소 전화번호 달서구 송현2동 61-4
623-6269

이름 최은영
과 직책 윤리교육 부회장
주소 전화번호 북구 산격1동
산격주공아파트 103-1410 954-9845

이름 박혜경
과 직책 수학교육 부회장
주소 전화번호 수성구 범어2동 253-11
연립주택 9호 756-5787

이름 전영심
과 직책 물리교육 부회장
주소 전화번호 경북 경산군 자인면
북사동 경도주택 10 (0541)53-2435

이름 유정숙
과 직책 화학교육 부회장
주소 전화번호 남구 대명7동 2244-4
621-0205

이름 정명애
과 직책 생물교육 부회장
주소 전화번호 남구 봉덕3동 557-24
471-1870

이름 허 미경
과 직책 지구과학 부회장
주소 전화번호 637-7218

이름 심수경
과 직책 가정교육 부회장
주소 전화번호 동구 신암 1동
657-113 959-9272

이름 윤성혜
과 직책 체육교육
주소 전화번호 동구 신암3동 220-33
941-2653

자 연 대

이름 최연수
과 직책 자연대 여학생회장
주소 전화번호 남구 이천 2동
184-22 474-2787

이름 이은영
과 직책 자연대 총기부장
주소 전화번호 서구 평리 2동
1102-11 565-1514

이름 김옥련
과 직책 자연대 학술부장
주소 전화번호 달서구 진천3동
581-3 637-2399

이름 박미란
과 직책 자연대 교선부장
주소 전화번호 경주시 섬진동
620-148 (0561)772-3752

이름 고점순
과 직책 수학과 부회장
주소 전화번호

이름 박은영
과 직책 통계과 부회장
주소 전화번호

이름 윤혜진
과 직책 의예과 여학생회장
주소 전화번호 627-9108

이름 윤형화
과 직책 치의예 여학생회장
주소 전화번호 서구 비산 2동 83-11
556-0591

이름 이지영
과 직책 천문기상 부회장
주소 전화번호 752-2252

이름 손정희
과 직책 생물과 부회장
주소 전화번호 북구산격 1313-52
953-7225

이름 김현지
과 직책 지질부회장
주소 전화번호 북구 대현 1동
168-27 942-4898

이름 오선미
과 직책 생화학 부회장
주소 전화번호 357-8190

이름 박영옥
과 직책 미생물 부회장
주소 전화번호 청도군 이서면 양원리 372

이름 정은주
과 직책 유전공 부회장
주소 전화번호 627-0090

이름 최정남
과 직책 화학 부회장
주소 전화번호 북구 대현 1동 112-67
952-7210

총 여 학 생 회

이름 이 상순
과 직책 총여학생회장
여학생회(부)일을 하게 된 동기
총여학생회장 해볼라고
주소, 전화번호 953-9706

이름 한 은정
과 직책 총부여학생회장
여학생회(부) 일을 하게 된 동기
나는 여성문제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어요!
주소 전화번호 941-2148

이름 박향희
과 직책 총여학생회 사무부장
별명 일화
여학생회(부)일을 하게 된 동기
어린 마음에
주소 전화번호 051-505-2152

이름 장윤정
과 직책 총여 조직정책부장
별명 진지
여학생회(부)일을 하게 된 동기
별명이 힌트임
주소 전화번호 651-7146

이름 정추영
과 직책 총여 학술부장
별명 토완다
여학생회(부)일을 하게 된 동기
여연에 들때부터 운명적으로
주소 전화번호 958-4624

이름 김현정
과 직책 총여 선전부장
별명 작은 악마
여학생회(부)일을 하게 된 동기
대동학교 왔다 선배눈에 띄어서
주소 전화번호 813-0130

이름 박경아
과 직책 총여 여연부장
별명
여학생회(부)일을 하게 된 동기
연애 잘할려면 여성문제를 알아야 했기 때문
주소 전화번호 762-34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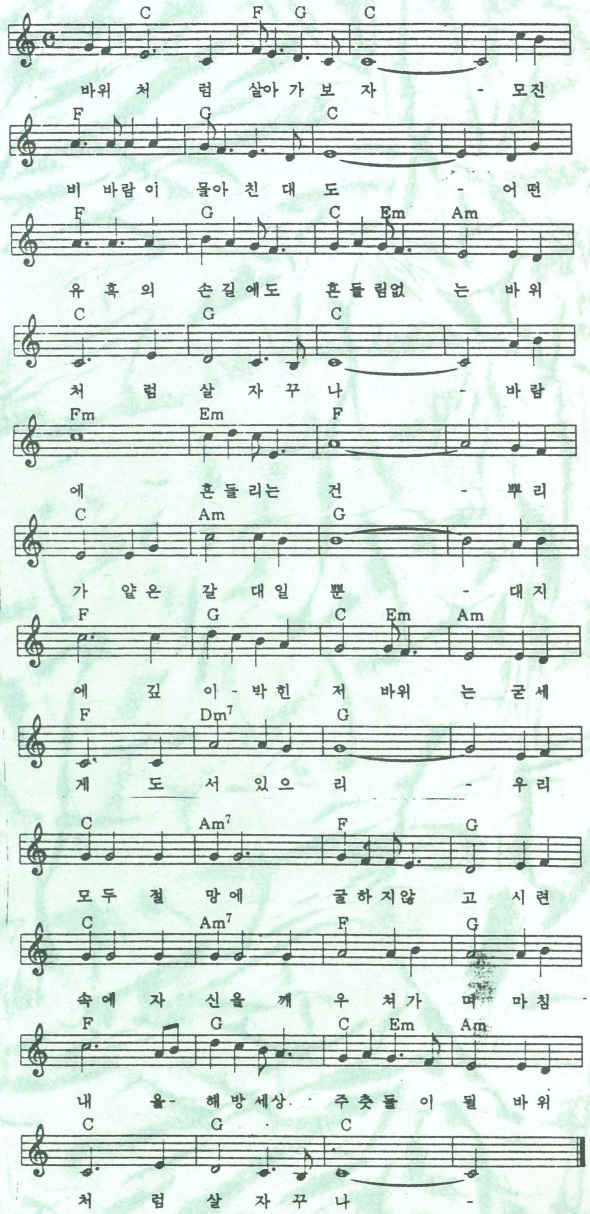
이름 이진희
과 직책 총여 편집부장
별명 램프의 거인 지니
여학생회(부)일을 하게 된 동기
우리 어머님 왈 사람은
자고로 큰 물에서 놀아야...
주소 전화번호 52-3374

이름 한은정
과 직책 총여 탁아부장
별명 꼬마
여학생회(부)일을 하게 된 동기
내가 아니면 누가 지키랴!
주소 전화번호 941-7986

불러 보자 좋은 노래

바위처럼

유인혁 글, 곡



우리들의 사랑은 보랏빛 꿈결이 아니죠
희미한 붉빛 카페의 속삭임도 아니예요
우리들의 청춘은 혼자서 꽃피는게 아니죠
더불어서 꽃꽃하게 피어나는 코스모스
지치고 쓰러져도 다시 피어나는 꽃
눈물보다 더 빨리 모질게 피어나는 꽃
자주적인 여학생회 언제나 함께 하는 친구처럼
여성해방 그날까지 변치않을 사랑이죠

여성이 사는 이 헌난한 세상
교육과 취업에 차별이 있어
성폭력 위협에 시달리면서
더이상 이렇게는 살 수가 없어
교육 차별없는 평등교육을
취업 차별없는 고용평등을
여학우여 함께가는 자주적 여학생회
7천의 어깨동무 자주적 여학생회